時計塔
SIGETOP

2020년 1월 20일 | 서울大學校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 제47권 1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발행인: 李聖吉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 亮 羅斗燮 徐仁錫 李善姬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晢 李熙景 許善行

www.snucmaaus.org

SNUCMAA of North America 37th Convention

37차 서울의대 북미주총동창회 학술대회

April 2nd(Thursday)-5th(Sunday), 2020

at Westin Tysons Corner

Falls Church, VA 22043 703-893-1340

GENERAL PROGRAM

April 2, 2020 (Thursday)

10:30am-4:30pm	Westwood Country Club (Tee time: 10:30 am for 6 group)
9:00am-5:00pm	DC tour (벚꽃축제)
4:00pm-5:00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5:00pm-6:00pm	1st General Assembly(총회), Evergreen room (Keynote speaker, Dr Rhim, Johng Sik(57),
6:00pm-7:30 pm	2nd BOD meeting & 2nd Delegate meeting, Evergreen room

April 3, 2020 (Friday)

7:30am-8:30am	Breakfast, Birch room
8:30am-12 noon	Registration at Main Lobby
9:00am -12 noon	Non CME, Oak 2 room
12noon -1:00pm	Lunch, Birch room
3:00 pm - 6:0 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1:00 pm - 4:0 pm	Non CME, Oak 2 room
3:00 pm - 6:0 pm	AASCDTF Forum, Evergreen room
6:30pm-10:3 pm	Banquet, Oak Ballroom

April 4, 2020 (Saturday)

7:30am-8:30am	Breakfast, Birch room
8:30am-12 noon	Registration at Main Lobby
8:30am-12 noon	Scientific Session, Oak 1 room
9:00am- 12 noon	Non CME, Oak 2 room
12 noon-1:00pm	Lunch, Birch room
1:00pm-5:00pm	Scientific Session, Oak 1 room
1:00pm-4:00pm	Non CME, Oak 2 room
3:00pm-6:00pm	Registration at Main Lobby
5:00pm-6:30pm	Reception, Junior Ballroom
7:00pm-11:00pm	Grand Banquet, Oak Ballroom
10:00pm-11:00pm	GP Meeting, Evergreen room

April 5, 2020 (Sunday)

7:30 am-8:30 am	Breakfast, Birch room
9:00 am-12 noon	Registration at Main Lobby
8:00 am-12 noon	Scientific Session, Oak 1 room
12 noon-1:00 pm	Lunch, Birch room

Westin Tysons Corner 호텔 예약

https://www.marriott.com/event-reservations/reservation-link.mi?id=1573753188189&key=GRP&app=resvlink

1. Internet connection 들어가셔서 위의 것을 copy and paste하게 되면 우리 단체의 예약할 것이 뜨게 됩니다.
2. 일반 방(King size bed or 2 Double bed)가 1 night에 $109 입니다.
3. 혹시 suite room을 원하시면 1 night에 $179 입니다.
4. 예약 전화 번호: (888) 627-8970

Book your group rate for 37th Annual SNUCMAA Convention

Event Summary: 37th Annual SNUCMAA Convention
Start Date: Wednesday, April 1, 2020
End Date: Monday, April 6, 2020
Last Day to Book: 2020년 3월 15일까지 이 room block적용
Hotel(s) offering your special group rate: The Westin Tysons Corner for $109 USD - $179 USD per night

37차 학술대회 골프 안내

만나는 장소: Westwood Country Club
800 Maple Ave. East, Vienna, VA 22180
만나는 시간: 오전 10시 (티 타임 오전 10시30분)
차편: 개인부담, 호텔에서 Uber 혹은 지인 차량 이동 추천
점심: 김밥과 물 (골프장 제공)
골프 Club Rental: $35-40 정도, 신원석 총무에게 미리 연락 바람.
Drshin4u@hhotmail.com

워싱톤 디씨 시내 관광 안내

일시: 2020년 4월 2일 (목) 오전 9시 호텔 로비 앞 출발
가격: $100/1인 (한인 안내, 입장료, 가이드 팁, 점심(김밥 포함)
외부관광: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내부관광: 스미스 소니언 우주항공 박물관,
스미스 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제퍼슨 기념관,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 기념비 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37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서윤석, 박종철, 김영애, 신용계, 조병선, 48기 회장단 일동

신 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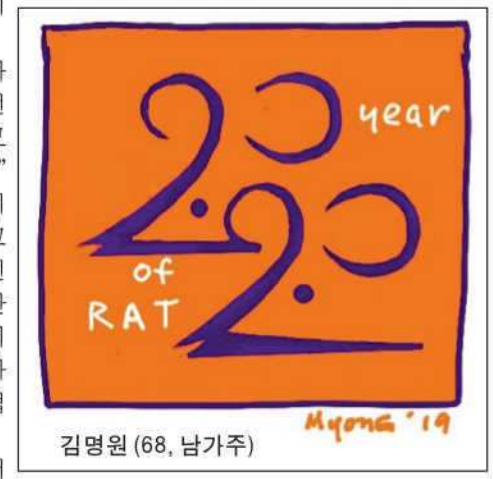
회장 이 성 길

새해 경자년에 소원 성취하시고 여러 동문들과 가족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우리 북미주의대동창회가 설립된 지 4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혜와 사랑으로 많은 동문들은 주위의 지역사회와 세계 방방곡곡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티벳, 아이티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고 지역 사회에서도 의료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류를 위한 동문들의 봉사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미주 의대 동문회의, 나아가서 모교인 서울의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의료뿐만이 아니라 문학, 예술에 기여하시는 분들, 도시에서 무료로 아이들을 지도하시며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동창회는 이번에 새로운 가계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동창회 재정을 든든히 하여 발전할 것입니다. 김태웅 님, 두산재단 박용현 님, 정병욱 님 등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올해에도 젊은 후배들의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한인 2세 자녀 8명, 모교 학생 5명에게 재정적 후원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본인은 모교동창회 주관인 함춘송년회에 나가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참으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 인터넷이 퍼져 있었습니다. 모교에서는 "세상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학생도서관"을 내년부터 시공합니다. 대학병원은 의학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와 시술을 융화 시키는데 앞장서서 달리고 있답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금년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신임 안우성(76) 회장님의 리더쉽이 시작됩니다. 더 훌륭한 목표를 준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전에 여러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사님들과 상의한 후 여론 조사를 시행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창회의 미래를 위하여 꼭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차 학술대회는 4월 2일부터 Washington DC, Virginia에서 열립니다. 우리 여러 임원진들께서 긴장과 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김명원 (68, 남가주)

경자년(庚子年)에 붙이는 글

2019년의 묵은 해가 지나가고 2020 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해(음력)는 경자년(庚子年)으로 12간지(干支)의 첫 번째 띠인 '쥐띠'가 됩니다. 설치류(齧齒類) 중에서도 인간과 가장 가까운 종(種)은 집쥐인데 집쥐의 조상은 원래 서남아시아에서 발생하여 12-13세기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14-15세기 이후 대륙 간 항해의 붐을 타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쥐는 우리 인간에게 결코 유익한 동물은 아닙니다. 생김새가 얄밉고 성질이 급하며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않고 나돌면서 병을 옮길 뿐만 아니라 양식을 약탈하고 귀한 물건들을 쏠아 재산을 축내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동물입니다.

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특이한 이빨입니다. 아래 위턱에 각각 한 쌍의 문치(門齒)와 세 쌍의 구치(臼齒)가 있는데 쥐가 틈틈이 앞 이빨로 무엇인가를 계속 갉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문치가 끊임없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물체를 쏠아서 닳게 하지 않으면 문치가 너무 자라서 입 밖으로 삐져나와 안으로 휘어 들어감으로 먹을 수가 없어 굶어서 죽게 됩니다.

둘째는 무서운 번식력입니다. 쥐의 증식은 복리계산(複利計算)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한 쌍의 쥐가 10마리씩 1년에 5회 낳는다면 그 새끼와 또 그 새끼가 낳는 것까지 합해서 1년 후면 1만 마리가 되고 3년 후면 무려 3억 5천만 마리가 됩니다. 특히 쥐는 수컷이 생후 35-40일, 암컷은 50 일 만에 숙성해지고 임신 기간도 20 여일 밖에 안됩니다. 이쯤되면 쥐의 번식력이 지구를 덮고도 남을만한데 실은 출산 후 95%의 폐사율과 천적(고양이, 족제비, 올빼미, 매)이나 질병, 식량부족 등이 폭발적인 증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집단생활입니다.

쥐의 집단은 상위와 하위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상위 그룹은 어른들로 그리고 하위 그룹은 젊은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쥐들은 굴속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면 상위자는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기만 해도 하위자는 저자세로 길을 양보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먹이턱에 다른 집단이 침입해 오면 상위자가 나서서 침입한 집단을 물리치고 하위자끼리 있을 때에는 먹이를 체념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넷째는 민첩한 행동력입니다. 쥐는 잘 달리고 기어오르며 뛰어오르기도 잘하고 헤엄질도 잘 합니다. 몸이 왜소하다 보니 아주 좁은 틈새도 잘 빠져 다니면서 곡간에 쌓아 둔 양곡을 도둑질하고 창고에 보관해 둔 물품들을 갉음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쥐들의 흉과 흠집만을 들어내다 보니 쥐들 입장에서 볼 때 서러운 감정이 발할 수도 있겠으나 달리 생각해 보면 쥐들에게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쥐는 부지런합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먹이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모아 놓기 때문에 숨겨놓은 재물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쥐띠가 밤에 태어나면 부자로 산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둘째, 쥐는 예의가 바르고 질서가 분명합니다. 쥐들의 굴 속 생활을 보면 부부 침실, 새끼방, 측간, 식량창고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어르신네를 만나면 슬쩍 자리를 피해주는 아량을 베풉니다. 셋째, 우리 조상들은 문화적으로 쥐를 재물과 다산 그리고 풍요 기원의 상징으로 보았고 아무리 딱딱한 물건이라도 조그마한 앞니로 구멍을 내어놓은 일에서 근면성과 인내력을 지닌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끝으로 쥐는 인간의 의약 발전을 위한 실험동물로 공헌해 주는 고마운 동물이기도 합니다.

경자년 '쥐띠'를 맞이해서 우리 동문 가정마다 쥐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발휘해서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면서 예의 바르고 질서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 덕 숭 (60, 남가주)

동남쪽 하늘에 먼동이 트고 있습니다. 살림이 풍성해진다는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을 맞이하여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편집회 소식을 드립니다. 1974년 7월에 미국 땅에서 우리의 시계탑 발행이 시작된 지 이제 46년이 됐습니다. 의사로서 체험한 경험담은 물론 문학, 음악, 미술, 역사, 철학, 여행기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여러분께서 시계탑에 발표하셨고 생활의 지혜를 이 신문을 통하여 서로 나누었습니다. 불의 발견으로 시작한 인류가 1,2차 산업 혁명을 거쳐 현대 문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이 시계탑을 통하여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노용면 님을 비롯하여 김병석, 김승업, 이희경, 허선행, 송관호, 유진일, 서량, 임안무, 이원택, 노재홍, 서인석 등 열두 분의 전 편집장님들과 많은 편집위원님들이 그동안 쏟은 선구적이고 희생적인 노력으로 모두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1994년부터는 시계탑 기사를 바탕으로 문집을 5년마다 발행했으며 금년에도 제6집(2014-2019)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들 중에는 다른 대학 출신들보다도 의학 이외의 여러 방면에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다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글들이 시계탑에 실려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995년부터 지구상에서는 3차 산업혁명을 거쳐 근래에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창회도 인터넷을 통한 이런 전자 정보 시대에 맞추어서 시계탑 발행은 물론 그와 병행하여 동창회가 주관하는 Web Site를 미국 수도 버지니아에서 44대 회기인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나 snucmaaus.org로 들어가면 우리 미주 의대 동창회 소식, 장학회 소식, 예술작품, 젊은 세대 소식을 신속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14년간의 시계탑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을 주광국, 송경민 두 동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계탑 신문과 Website는 언론 분야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며 동창회 전 회원을 위한 귀중한 눈과 귀요 입입니다. 지나친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나 치우친 개인적인 표현이나 생각 또는 한두 명의 의견에 동요되어서는 안되는 오랜 편집회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회 위원들은 외부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동창회 안의 독립적인 조직임을 지난 동창회 이사회에서 확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전통을 우리 편집회는 준수할 것입니다. 원고를 보내시는 분은 표준 철자법을 지켜야 합니다. 2년 전 시작한 시계탑의 컬러 디자인과 종이의 질의 향상으로 독자들의 관심과 원고의 투고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집의 발행에 예상 이외로 많은 동문들이 물심 양면으로 성원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문집 6집은 3월 말까지 인쇄와 수송이 예정되며 4월 2일-5일까지 Westin Hotel Tysons Corner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37차 학술대회에 오시면 책을 우선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워싱턴 벚꽃의 관광 계절이고 사모님들이 근처에 쇼핑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많이 참여하시어 박종철 님이 주관하는 Scientific CME Part는 물론 김영애 님이 주관하는 Non CME의 교양 강좌에서 훌륭하신 강사진(강수상, 서량, 최연홍, 이영묵, 강창욱, 온기철, 박종희 님 등)의 흥미로운 문학, 철학, 역사 강의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 모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계탑 편집장, 37차 학술대회 Convention Chair 서윤석

2020년 1월 11일 편집회 초록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ew Jersey

참석자: 허선행, 서윤석, 서인석, 이선희, 박은경(영상), 황창근 사장

호텔 사정으로 18일에서 11일로 바뀌는 관계로 늘 참석하던 서량 동문은 깜박 불참이다.

시계탑 문집 6집이 편집되었다. 50여 명의 동문들의 작품과 여러분들의 물심양면의 성원으로 340 페이지의 아름다운 문집에 대한 최종 편집회의 허락이 결정되었다. 서울에서 인쇄가 곧 시작되며 책이 만들어지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우리에게 우송되는 것이 3월 말까지로 예상한다.

제1집을 1994년 당시 편집장 허선행 님이 한국의 동문들의 협조로 시작한 것이 25년 전이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15페이지의 천연색 사진을 첨가하여 많은 분들에게 친근감을 드릴 것이다.

이어서 1월호 시계탑 원고에 대한 교정 시간이 있었다. 이선희 위원이 전화로 연결하여 Iowa City에서 박은경 위원이 같이 편집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다. 수년 전 미국 병원에 자리를 찾기가 힘들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던 Training을 마치고 핵의학과 Attending이 되어서 새로 대궐 같은 집도 사고 부군 최도빈 교수와 6살짜리 따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모두들 축하해 주었다.

원고 교정 시간에는 요즈음 종교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기사들, 혹은 표준 맞춤법에 어긋나는 원고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참석한 모든 편집위원들의 결정이 또다시 있었다. 다음 편집회는 4월 초 워싱턴에서 열릴 학술대회 후 4월 11일 경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대의원회가 동서부가 함께 영상으로 있었다. 1월호 작품 저자 중에 서자성은 慈性 서윤석과 동일 인물이다. 글: 편집인 서윤석

2019-2020 제1차 대의원회 초록

일시: 2020년 1월 11일 동부 오후 3시, 서부 낮 12시
장소: 동부 - Double Tree Hilton, NJ / 서부 - JJ Grand Hotel, CA

동부 참가자: 앞줄: 이선희(81) 홍선경(64) 한기현(63) 채규철(59) 이성길(71) 허선행(64) 최영자(66) / 뒷줄: 박종철(99) 서윤석(68) 강창홍(71) 강유구(71) 이명희(66) 최순채(66) 권정덕(64) 서인석(73) 문대옥(73) 한민우(75) 죤 백

서부 참가자: 김의신(66) 이헌령(68)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전경배(75) 안우성(76) 김동훈(77) 차민영(82)

Proxy:
김웅식(55) 임종식(57) 이만택(58) 김태웅(63) 추재옥(63) 최준희(64) 주광국(68) 이건일(68) 임웅규(69) 곽승용(71) 조세진(71) 정균희(72) 고용규(73) 박진섭(73) 백승원(79) 최광휘(79) 남명호(81) 서귀숙(84) 신원석(88) 이선규(89) 오무연(89) 강민종(91) 송경민(09) 장세권(01)

1. 참석인원 점검 후 이성길 회장이 1차 대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2. 2019년 9월 28일 1차 이사회 초록에 대해 만장 일치로 승인이 있었음.
3. 재무보고 (강유구 재무):

- Quicken System for Finance and Budget을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 정리한 것을 PPT로 설명함.
- Quicken은 현재 동창회가 사용을 하는 은행인 Chase bank에서 all transaction을 자동으로 download받은 data에 자동 입력되어, 각 지출에 대한 설명이 동창회에 맞게 category화 하여, 지출 정리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 입금에 대한 것만 Quicken에 넣게되므로, 상세 수입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 동창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excel로 정확한 detail을 정리하는 system을 연속하여, 수입과 지출을 Quicken과 excel 정리를 갖고 합쳐서 동창회의 재무 관리를 하게 된다고 발표함.
- 매 회계마다 회계사가 세금보고 준비를 할 때에 이 system의 사용으로, 그 일이 수월해 질 것을 예상하여 세무사에게 책정액이 적어지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의 동창회 재무관계는 매우 clear 하고 reliable 하다고 함.
- Donation을 더 늘릴 방법을 강구하고 동창회의 일에 일관성을 갖고 해 보자는 시도로 지출 정리는 매 회기 재무가 Quicken을 이어서 사용하자고 함.

4. 이성길 회장 보고:

- 많은 동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여러 동문의 지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고, 지난 12월 17일에 참석한 서울 함춘송년의 밤 행사에서 받은 뜨거운 환영에 감사을 표함.
- GP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함.

5. Finance committee (김성환 chair) 보고:

지난 정균희 회기의 재무보고가 있었음을 발표. 이 재무 보고만을 보면 적자로 나타나지만, 그 실제 이유는 2년 전 한승신 회기의 학술대회가 6월 말에 있어 큰 부분의 지출이 지난 해 정균희 회기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음.

그 지출에 대한 내용을 대의원회에서 PPT로 보이며, 정균희 회기만의 회계상으로 보면 많은 흑자였음을 보고함. 이러한 재무보고와 실제의 재무관계는 학술대회 일정에 따라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했음.

6. Scholarship committee (이선희 chair) 보고:

- 이유찬 장학금이 미주장학금에 추가됨. ($5,000 two students $2,500 each)
- 한국으로 보내지는 SNUCMAA 장학금 $2,000x5명 pre-approval 요청.

학생 clerkship이 다시 1월에서 7월로 바뀜. 서울의대에서 추천자 명단이 4월 후에 작성 도착 예정임.

7. Fund Management committee (죤 백 펀드매니저) 보고:

Scholarship fund와 General fund에 $5,000 투자한 fund인데 5만 불에 대해서는 현재 $54,150이 되었으며 Scholarship fund에서 나오는 이자는 매달 은행으로 들어가고, 소액은 재투자가 되고 있어서 매년 2만 불씩 빼어 사용하는 scholarship fund를 계속 유지하려면 매 회기마다 $12,800을 다시 이 Scholarship fund에 넣어야 됨을 보고함. 평균 이 Scholarship fund의 연수익률은 5.5%이고 현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후 10년간 혹은 더 계속 $220,000정도 유지 될 수 있음을 보고함.

8. Web Site Committee (주광국 chair) 서면보고:

현재 website를 PPT로 모든 information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빠른 update이 됨을 보고하고 많은 동문의 Snucmaaus.org를 사용을 요망함.

9. Charity committee (최영자 chair)보고:

- 예전에는 동아제약의 큰 fund로 Charity fund가 넉넉하여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으나 근래에 줄어든 fund를 늘릴 방안을 발표함.
- 근래 몇 년간 NYCOCO에 지원하는 일 밖에 못했으나, 학술대회에 제약회사를 유치해서 재정을 증가하는 방법을 설명함. 일 예로 Chinese Board에 참석을 하니 많은 제약회사에서 참여를 얻어서 큰 fund를 만들고 있었는데, 같은 결과를 해보자는 발표였음. 이는 local 동문의 많은 협력으로 각 전공과 연결이 되는 제약회사와의 협력을 이끌어 달라는 요청을 함. 이에는 fund raising committee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PPT로 지금까지 연구한 제약회사의 list가 보여졌다.

10. Publication committee (서윤석 chair) 보고:

- 제6호 문집 발행 준비가 예상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에 감사함을 말씀 했고, 6호 문집은 37차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선물로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50여명의 회원이 각자의 작품으로 참여하였고, 노영일(68) 동문의 문집 표지 도안 재능기부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함.
- 문집발행 기부금은 총 $16,600이 모든 참여 회원 작가들로부터 모금이 되어 발행예산을 넘어선 모금으로 감사하고, 문집발행을 수고를 아끼지 않는 편집위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함.
- 1월호 시계탑은 1월 25일 원고 마감하여 모든 회원에게 4월에 있을 학술대회 홍보가 나가야 함으로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의 도움을 청함.

11. 37회 학술대회 준비사항 발표:

- 올해는 처음으로 4월 2일 오후 5시부터 전체 동문을 위한 일반 총회를 합니다. Keynote Speaker로는 임종식(57) 동문을 모실 계획임.
- 총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후 6시부터 제2차 대의원회 겸 제2차 이사회를 진행예정임. 이 회의에서 차기 회장의 인준이 있을 예정임.
- 차기 안우성 회장님은 임원진을 조직하여 인준을 받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차기 학술대회 장소와 날짜도 발표해 주기를 요청함.
- 10명의 새 이사가 인준될 예정임.

12. Non-CME 김영애 여사의 발표:

- 많은 회원과 배우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37차 학술대회의 Non-CME는 재미있고 유익한 교양강좌로 준비가 잘 되어있고 특히 반응이 매우 좋은 박종희(75)동문의 시조 강좌에는 강좌 이후 시조 만들기 대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음.

13. Scientific committee (박종철 chair) 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을 Scientific session program이 완성이 되었고, Keynote Speaker로 강수상(53) 동문을 모시고, 한국에서 수 명의 교수가 초빙강사로 참여한다고 보고함.

14. New Business discussion:

- 학술대회에서 제약회사의 booth를 설치하여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으려면 평소 동양인의 병 문제, 예방의학, 질병치료 등을 계속 발표, 연구를 해야 제약회사로부터 우리 동창회가 관심을 받게 된다.
- GP reimbursement와 외래 강사 수고비 등은 각 committee와 상의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것임.
- 참석자를 동부와 서부에서 소개하고 인사가 있었고, 서부 모임비용은 차민영(82) 동문이 냄으로서 동창회 회계에 도움을 주었다.

동부와 서부에서 사진 촬영을 끝으로 회의를 마침.

The 37th Medical Convention Scientific Session Program

4/4/2020 Saturday 9:00 - 5:00

Healthy Aging: Living long and living well

Session #1: 8:30 - 10:00: 3 speakers
- Belong Cho (SNU Seoul Family medicine): Healthy aging
- Richard Lee (MGH/Harvard, medical oncology): Prostate cancer: from screening to recent treatment advance
- Peter Jongho Na (NYU, psychiatry) : Senior mental health.

Session #2: 10:15 - 12:00: 3 speakers
- **Keynote Speaker: David Soo Sang Kang: No death**
- Young Nam Kim (Philadelphia, endocrinology): Current treatment of elderly type 2 diabetes mellitus
- Jongoh Kim (Texas, endocrinology); Bone health in elderly population

Session #3: 1:00 - 3:00 3 speakers
- Ki-Woong Kim (SNU Psychiatry): Dementia
- Jae-Hyup Lee (SNU Orthopedic): Geriatric Spine
- Seong Ho Kong: (SNU Surgery): Stomach Cancer early diagnosis and biomarker

Session #4: Stomach Cancer panel discussion: 3:00 - 5:00 4 speakers
- Myong Ho Nam (81) moderator
- Joo Ha Hwang (Stanford): AASCDTF progress report and endoscopic treatment of early gastric cancer
- Eun J Lee (USC): Epidemiology
- Timothy Cannon (INOVA): Biomarkers for gastric cancer
- Hae S Park (Wash U): Panel discussion
- Chang Ho Suk (NY): Diagnosis and management of early gastric cancer

4/5/2020 Sunday 8:30 - 12:00

GP session
Cancer: from prevention to new drug development

Session #1: 8:00 - 10:00: 4 speakers (20min per speaker, 30 min panel discussion)
- Haeseong Park (Wash U): GI cancer
- Won jae Huh (Vanderbilt): MSI testing in cancer
- Tae kon Kim (Vanderbilt): Immune checkpoint inhibitors in cancer
- Min-Jeong Kim (NIH): Neuro-imaging
-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panel discussion: Ghana Kang (VA, oncology), Soo jung Cho (Weill Cornell, Pulmonary), Taehoon Lee (Mount Sinai, GI), Hyungsik Yang (Brigham and Women's, Neurology). Jong Park, (MGH, Oncology)

Session #2: 10:15 - 12:00: 4 speakers (20 min per speaker, 10 min Q&A)
- Jonghanne Park (NJ, Medicine): oncology clinical trials
- Yewon Choi (Genesco, MA): oncology drug development
- Sekwon Jang (INOVA): skin cancer
- Taewoong Choi (Duke): Current status of cellular therapy

동문동정 및 지부소식

2020년 버지니아 지역 동창회 신년 모임

2020년 1월 23일 정오에 Centreville에 위치한 강촌 식당 연회장에서 2020년을 맞는 모임이 있었다. 동문 22명 그리고 배우자 총 41명이 참가했다. 4쌍의 동문은 갑자기 생긴 경북의대 출신 장례가 있어서 불참이다.

37차 Convention 준비사항 소개와 덕담, 자기소개, 여흥시간을 가지고 3시경에 서울에서 온 신문과 달력을 전해받고 4월초 학회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참가한 동문은 사진에서 서있는 줄 좌로부터 서윤석(68), 이중오(64), 양성훈(71), 김제홍(71), 박인영(75), 진창건(61), 고영희(63), 김병오(69), 박수웅(69), 신용계(68), 주광국(68), 김주평(68), 김희주(68). 앞줄 좌로부터 임낙중(59), 김용덕(59), 한달수(59), 이웅만(68), 임종식(57), 이중희(65), 이병붕(63), 신백효(65), 그리고 신원석(88) 동문이 참석했다가 환자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

노래하는 임낙중(59) 동문님과 Mrs. 신백효(65)

서울의대 북가주 지역 동창회 모임

서울의대 북가주지역 동창회는 지난 2019년 12월 1일 중식당(Great Wall)에서 모임을 갖고 새 임원으로 회장 조은순(415-628-9757), 부회장 신영규 (925-954-8048), 총무 장한교(925-954-8696) 동문을 선출했다.

이날 참석자는 조은순(61), 장인호(63), 신영규(63), 정유석(64), 장한교(66), 이진수(67) 동문 부부들과, 이명순(고 이순환 60년 부인), 유경임(고 이재호 62년 부인) 이다.

71년 졸업 동기모임 소식

- 삼개월마다 만남을 갖는 71년 졸업 동기들의 모임이 2019년 9월 16일에 로스앤젤스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마침 동부에서 방문한 배성호 동기와 함께 안과 의사 김용제 동문의 러시아 행진곡의 강연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즐기며 해후의 반가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지난 9월에 이어 12월 15일의 정기 모임에서는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타에서 종신교수로 종사하신 김의신(66)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암과 건강한 삶"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동기들은 새롭고도 신선한 정보와 유익하게 도움이 되는 김의신 박사의 강의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장학기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고 한용현 선배님의 부인께서장학기금으로 $3000을 보내오셨습니다.

- 권정덕(64) 동문을 통하여 고 이유찬(64) 동문의 아드님(James Rhee)께서 동창회로 장학기금 $5,000을 기부하셨습니다.

- 임현재(65) 동문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정병욱(서울의대 예과 마친후 도미) 펀드를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 $10,000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범세(63) 동문 별세

2019년 12월 21일 87세 일기로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노용면(55) 동문 90세 생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의 얼굴인 시계탑을 46년전인 1974년에 창간하신 노용면 선배님께서 90세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드리며 더욱 더 건강하셔서 시계탑을 위해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네 아들중 두 아들과 함께 - 편집실

오유정(2016 졸업) 동문

올해 레지던트 apply하고 있는 11명 중의 한 명인 2016년 졸업 오유정 동문이 Brooklyn Hospital Center 소아과 인터뷰을 하고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 레지던트와 의대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 - 서인석(73)

편집실로 온 고 한용현, 고 이유찬 가족의 편지

Mrs. 한용현 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호 시계탑에 홍선경 동문님이 쓰신 한용현 선배님을 추모하는 글과 댁의 아드님이 영문으로 쓰신 추모의 말씀을 실었습니다. 6면과 7면입니다. 우리 시계탑 신문은 한용현 선배님께서 제3대 서울의대 미주총동창회장을 하시던 1974년 7월에 창간되었습니다. 초대 편집장이 노용면 선배님이시었는데 만 45년 3개월전 일입니다. 이렇게 시계탑은 역사가 깊은 우리의 얼굴과 같은 자랑스러운 신문입니다. 사모님께서 작고하신 한용현 선배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기부금을 보내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Scholorship에 $3,000 그리고 General Fund에 $120 기록되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번 호 시계탑을 3부 더 보내드립니다.

미주 동창회와 모든 회원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하여 이 서신을 드립니다. 모든 동문들이 한용현 선배님 내외분의 높은 사랑의 뜻을 깊이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0월 26일 시계탑 편집장 서윤석 드림

Dear Dr. Seo

시계탑에 홍선경 후배님과 저희 아들 Eulogy를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러 시계탑 3부를 보내주셔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 들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동창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Dr. Seo께서 쓰신 '아버지의 사랑'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도 서 씨고 경기여고 14회 졸업하시고 수학, 물리를 가리키셨다니 너무 재미있네요. 아무쪼록 두 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요.

Mrs. 한용현 드림

고 이유찬(64) 동문 자제 제임스 리

James Rhee 2020년 1월 20일

형제들을 대신하여 1964년 동기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친구 이유찬 님은 파킨손 병으로 투병아시다가 2015년 7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4년 후 2019년 9월 30일에 지난 가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저 췌장암으로 잠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이)화자 님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1966년 10월에 결혼하셨습니다. 1967년 미국으로 이주하시고 1977년 1월 미국시민이 되셨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처럼 저의 부모님도 모든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정열적으로 인술을 베푸셨습니다. 미국으로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희망과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아버지의 성공적인 소아과 전문의 개업을 위하여 어머니가 주로 아이들을 기르시고 힘껏 도와드렸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도 롱아일랜드에 있는 State Veterans Homes, Stony Brook University에서 감호부장으로 일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든 미국 풍습과 영어를 그리고 골프, 맥도날드, 집 장만, 세 명의 자녀를 기르는데 힘을 함께 하셨습니다. 십여 년간 아버지의 병간호도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이유찬, 장화자 부부

저도 나이가 50이 되어가는데 뒤 돌아다보면 1984년 아버지 졸업 20주년 기념 모임에 저의 어린 나이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의 부모님의 인생은 힘이 들고 때로는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경력과 학교 친구들만이 늘 머나먼 외국 땅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친구이자 가족이나 같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형제들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장학활동을 함으로써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의 남자, 또 한 명의 여자 장학금을 드리면서 그래서 부모님의 인생을 축복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죤, 제니퍼 그리고 7명의 손자 손녀를 대신하여 제임스 리 드림 - (번역 서윤석)

January 20, 2020

On behalf of my brother and sister, greetings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lass of 1964. As many of you know, we lost our father and your classmate, Youchan Rhee, after a protracted battle with Parkinson's Disease in July 2015. This past autumn, on September 30, 2019, we said an emotional goodbye to his beloved wife and our loving mother after a short battle with pancreatic cancer. Hwa Ja Rhee graduated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in 1964. Our parents married on October 10, 1966,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1967 and became naturalized U.S. citizens in January 1977.

Like many of you, our parents dedicated their entire lives to caregiving with a quiet but determined grace. They came to the United States with their respective degrees, sprinkled with hope and determination. For most of our childhood, our mother served as primary caregiver for us,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our father to build a successful private pediatric practice based in Long Island, New York. Later in life, our mother renewed her nursing credentials after a two-decade sabbatical and ultimately served as a supervising nurse at the Long Island State Veterans Home at Stony Brook University for twelve years. They did and learned everything together: American customs, the English language, how to play golf, eat McDonalds, buy a home, and raise three children in a strange land. My mother was the sole caregiver for my father while he battled Parkinson's for over a decade.

As I approach 50 years old, I look back with fond memories of the 1984 reunion in Seoul and all of the get together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our childhood. Life must have been hard for my parents, and they must have been incredibly lonely at times. Their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enabled them to build a life in a foreign country, but it is their relationships with you, their classmates and friends, that sustained them. You were their only family in the United States and, for that, we wanted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Please accept these two scholarships, one for a young man and one for a young woman, as our way of saying thank you and celebrating the lives of our courageous parents.

On behalf of John, Jennifer and my parents' seven grandchildren,
James Rhee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수중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오셨나요?
2.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4. 관심이 있는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 하셨던 임상 전문분야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 들었던 때는?
6. 의대 학창시절 추억 중에서 생각나는 이야기 한 두개만 소개해 주세요.
7. 다시 태어나신다면 의사가 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에 일을 하시겠습니까?
8. 자녀 분들을 가르치실 때 얻은 경험중 후배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9. 특별한 취미 생활, 현재 건강을 위하여 하시는 비법, 운동이나 생활을 소개하여 주세요.
1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나 시계탑 신문 발행에 조언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세요.

한기현 (63) 선배님

1. 우리 때는 ECFMG를 치고 미국 Resident 과정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이 정상궤도처럼 생각했다. 우리 학년은 졸업 후 83명이 太平洋을 건너왔다. 정부에서 허가한 $50을 갖고 공군 군의관 복무 후인 1966년에 渡美 했다.

2. 내 육촌 누님과 집사람 친척 언니가 대학 동창이고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알게 됐고 7년을 교제하다가 내가 공군에 있을 때 결혼을 했다. 가장 행복했던 때는 연애하던 시절과 처음 내 돈으로 집을 장만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3. 아버님은 공대 化工科를 가라고 하셨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4.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정신과 의사가 되었을 것이다. 미국에 온다고 결심하니 아무래도 손을 직접 쓰는 과목이라야 미국 의사들과 경쟁이 될 것 같아서 外科 계통을 택했다.

5. 건강과 이해심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족이 아팠을 때였다. 처음은 큰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와서 앉은뱅이로 실려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 하늘이 노래졌다. 얼마 후 Guillian Barre로 진단이 나왔고 다행히 완전히 회복됐다. 두 번째는 한 3년 반 전쯤에 딸이 Cancer로 큰 수술을 두 번, Chemo를 받고 나서 지금은 마음을 졸이며 다음 MRI도 깨끗하기를 바란다. 다행히 씩씩하게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있어서 감사하고 있다. 집사람이 매일 하는 기도 덕분인 것 같다. 보람되었던 것은 Cancer 환자가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찾아오는 모습인 것이다.

6. 生化學 첫 시간에 시험문제 네 개를 주고 짧은 시간에 답을 제출했는데, 다음 시간에 거의 30% 학생이 0점, 나머지는 25점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우리 급우들 중에 그런 점수를 평생 다시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3학년 초에 어떤 교수님이 영국 Textbook을 한 권 주면서 그중 한 Chapter를 번역하라고 하셨다. 病名을 번역하다가 힘이 들어서 내 생각대로 번역하고 나서 (?) 마크를 붙여서 드렸는데 나중에 책이 그 교수님 '著'로 나와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한 번역이 잘 됐는지 거의 수정된 것이 없이 출판되어 어안이 벙벙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4-19 學生義擧였을 것이다. 본과 2학년 때인데 우리는 흰 가운을 입고 데모장에 나가서 눈에 많이 띄였던 것 같다. 중앙청 앞에서 우리는 학교 쪽으로 돌아오는데 군 트럭 세 대에서 무장군인들이 몇십 명이 내리더니 실탄 장진을 하여 놀래서 우리는 흩어져 학교로 돌아왔다. 급우 몇몇이 보이지를 않아서 다시 효자동 종점 근처 陸外科, 西大門市立病院까지 돌아서 왔지만 흰 가운을 입은 입원 환자는 없었다. 얼마 후 방송국에서 고대, 연대 학생회장과 나셋을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高大 학생회장이 말을 빨리 또 잘해서 우리 둘은 들러리를 선 기분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Circle 활동, 가정교사, 문학의 밤, 의대 신문 간행, 반 대의원, 졸업앨범 등에 관여하면서 언제 공부를 했는지 언제 Date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졸업하고 시험도 다 치렀으니 나는 대학 생활을 아무 후회 없이 유감 없이 즐겼다고 생각한다.

7. 네, 다시 태어났다면 法大에 가서 檢事가 됐어도 잘 했을 것 같다.

8. 아이들한테는 〈Make your best effort and then accept its consequence.〉라고 얘기한다. 의사로는 藥醫보다는 心醫가 되고 병보다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9. 잘은 못하고 Golf는 개업할 때나 지금이나 매주 3회 정도 운동 삼아 친다. 40년 전까지는 테니스를 쳤는데 Golf로 바꾼 다음부터는 라켓을 잡아본 적이 없다. 담배는 끊은 지 50년이 넘는다.

10. 잘 하고 계시니까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선배님의 글이라고 무조건 게재하는 인상은 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조한원 (63) 선배님

1. 미국으로는 본인이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1967년 6월에 우리 부부가 딸(13개월)과 함께 왔습니다. 미국에 온 동기는 선진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고 싶었고, 한국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올 때는 갖고 온 돈이 $300이었지요.

2. 노량진에서 서울의대를 다닐 때 집사람은 치과대학을 전차로 함께 통학하면서 사귀고 결혼했지요.

아무래도 충청도 시골에서 서울의대를 합격한 것이 꿈같았고 그것이 내 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3. 선생님의 권고가 있었고, 의사가 되면 사회적 위치와 생활이 보장되고, 남을 위하여 봉사도 할 수 있는 직업이어서 선택했습니다.

4. 전공과목은 이비인후과로 앨러지까지 여러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5. 근면과 성실,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는 언어의 장애가 제일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은 소리를 못 듣던 환자가 수술 후에 듣게 되고 즐거운 눈물을 같이 흘리던 일....

6. 대학생활을 즐기라고 권유를 받았으나 경제적인 제약과 학과에서 낙제를 면하느라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7. 다시 태어나도 의학이지요. 존경을 받고 환자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8. 4남매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떠났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들의 모범이 되고 사랑해 주어야지요.

9. 젊어서는 골프를 즐겼고, Handy 5, Hole in One을 네 번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담배는 냄새가 싫어서 평생 배우지 않았습니다.

10. 연로한 회원들이 많아져서 동창회 운영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수고하시는 임원들께 감사합니다. 시계탑에 올라온 어떤 여행기는 너무 길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권영조 (63) 선배님

1. 서울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료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서 미국에 와서 Connecticut에 있는 연구소에서 당시 첨단으로 여겨지던 Brain Embryonal Cell의 Chromosome 연구를 계속하려고 왔습니다. 수중에 $400밖에 허용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1년 급여가 $12,000였으며 생활 걱정은 안 했습니다.

2. 배우자 될 사람은 한국에서 처음 만났지만 미국에 와서 매일 편지와 카드를 보냈었지요. 결국 일 년 만에 초청해서 Connecticut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3.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으로 1년 휴학을 하였다가 검정고시로 서울의대에 들어왔습니다. 예과 때 병이 재발되어 또 1년을 휴학했습니다. 원래는 공대나 법대를 원했었는데 휴학 중에 의학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조건은 먼저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겠지요. Human Care가 모든 일에 앞서야 됩니다.

4. 한국에서는 산부인과였지만 미국에 와서는 Chromosome-DNA 연구를 수 년을 한 다음에 다시 University Illinois에서 Radiation Oncology를 전공했습니다. 그러고나서 Ohio에서 Oncology Practice를 했습니다.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California High Desert에 Radiation Therapy Outpatient Center를 세워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시간 이상 운전해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환자를 근처에서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또 그때 그것을 시작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6. 완도 무의촌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해본 일, 설악산으로 동기들과 여행을 간 것이 재미있었지만 가장 잊지 못할 것은 흰 까운을 입고 4-19 데모로 효자동 파출소까지 갔었는데 경무대에서 쏘는 총소리에 근처 동네로 도망쳐 갔던 일입니다.

7. 의사가 되는 것이 주저 없이 할 수 있는 길이지만 법대를 나와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도 보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8. 아이들이 의대로 가도록 가르치지 않은 것은 각자가 선택의 자유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사가 되지 않았고 Technology business, Public health/counselor. 목사 등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아무 후회가 없이 잘하고 있으니 만족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각자 특기를 살리면 후회 없이 잘 될 수 있습니다.

9.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지금(82세)까지 별 탈이 없이 입원하지 않고 건강한 것은 '분수'를 지키기 것입니다. 남가주의 은퇴한 의사들이 모임(Bethel Silver Medical Club)을 조직해 각 대학 출신 의사들(65세 이상)이 가까이 지내면서 Medical Mission, Community Service. Counseling, 사교모임 등을 하며 좋은 은퇴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는 Organize 된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아마도 이 조직이 유일한 Medical Retiree를 모아놓은 기구(Nonprofit Organization, State approved)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자라서 지금은 인원이 거의 100명에 가까운 기구가 되었습니다.

10. 편집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영희 (63) 선배님

1. 1966년 6월 26일 뉴욕주 Schenectady Ellis Hospital internship으로 계약이 되어 김포공항을 김택수, 선우건영과 같이 떠났다. 동경의 호텔에서 하루 묵었는데 시내 구경하면서 주머니에 딱 300불 있던 것 중 100불 이상을 주고 Canon camera를 샀는데 지금 생각하니 it didn't make sense at all.

2. 우리 어머님과 장모님은 서울 용산 원불교 교당 친구 사이였다. 내가 진해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어머님께서는 wife Jane을 여러 곳에 중매하시려고 노력하시던 중 성공을 못하셨다. 내가 서울 해군본부 의무실에서 마지막 임기를 일하고 있을 때 원불교 교무님이 "왜 며느리로 생각해 보지 않느냐" 라는 권고에 나에게 의향을 물으시고 결혼에 goal in 하게 되었다.

애들이 국민학교 들어가게 되자 골프 좋아하는 3 친구 (이종두, 윤영옥, 반택룡)와 함께 애들 모두 데리고 가족이 만나 오전에는 two foursome 이 골프 치고 오후에는 애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매월 돌아가며 만나던 시절이 너무 행복했다.

애들이 큰 후에는 송용덕 부부가 join하여 6대주를 돌며 골프를 쳤는데 자세한 내용은 윤영옥 군의 글로 시계탑에 이미 잘 소개되었다.

3. 집안에 의사가 없어서 특별한 inspiration을 얻은 것은 없었고 처음에는 법대를 가려 했으나 독일어에 자신을 잃었고 수학과 화학이 기질에 맞아 의학이 적합하다 생각하여 의대를 지원하게 됐다. 63년 동기들 개강하여 보니 모두가 훌륭한 자질을 가졌고 부지런히 학업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한 일원이 된 것에 proud하게 생각했다. 몸과 마음을 같이 돌보는 healing art이므로 내가 먼저 몸이 탄탄하고 마음이 道와 德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의사가 될 자격이 부여된다 하겠다.

4. Kentucky와 WV에서 pediatics training을 마친 후 NJ Martland Hospital (NJ college of medicine)에서 genetic fellowship을 하며 소아과의 지식을 넓혔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everything is the creation of mind)라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이 행복이냐 아니냐는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지 상황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을 잘 굴려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마음공부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면에 계속〉

황필규 (00) 동문

대학시절 한번 쯤은 외치셨을 이 문구,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기억나시나요? 과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에서 단합하며, 때론 술자리에서 흑기사/흑장미를 요청하며 동기 사랑을 내세웠지요. 경자년 새해를 맞아 Pittsburgh, PA에 있는 제 동기생인 황필규 동문(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at Passavant 병리과)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마침 2020년 2월 22일에 저희 학번이 졸업 20주년 행사를 하는지라, 180여명이 서로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던 참이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여전한 목소리, 금새 수다를 나누게 되는 친근함에 20년이라는 숫자를 가볍게 넘어 그 때로 돌아갔습니다. 성실하고 차분하면서도 재미있고 박학다식하여 누구나 신뢰하고 좋아하는 친구였던 저희 학번의 대표 주자, 황필규 동문을 만나보시지요.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저는 서울에 위치한 국립 독성 연구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레지던시 매칭을 준비하여 2008년 7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Hospital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병리과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인 첫째가 다섯살 때였지요. 학교 졸업 후 모교 병원에서 인턴과 해부병리과 전공의를 마치고 공보의 근무까지 하고 왔으니, 졸업하자마자 오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늦게 온 편이지요. 학생 때에는 사실 미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병리과 전공의 수련이 끝나갈 무렵 해부병리 외에 임상병리 쪽도 알고픈 생각이 든 것이 시작이라까요. 해부병리만 하면 검사실/실험실 의학의 절반만 아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다시 한국에서 임상병리 수련을 받는 방안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동안 배운 해부병리를 다 잊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해부병리 수련이 꽤 재미있었기에 맥이 끊기지 않을 방법을 찾다보니, 미국에서는 해부병리와 임상병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AP/CP (anatomic pathology/clinical pathology) combined residency가 있어 바로 이 길이다 싶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예전에 알던 것을 계속 익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결심이 섰지요.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던 세포병리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었고요.

2. 요즘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하는 일은 동결진단(frozen section), rapid on-site evaluation (ROSE)라고 해서 조직검사 등 각종 시술 옆에서 즉석으로 하는 세포병리(cytopathology), 정규 외과병리/세포병리 슬라이드 판독 및 추가 검사 오더, 임상과와의 컨퍼런스 준비, 임상병리 혈액도말 판독 등 다양합니다. 매일 스케줄별로 다르게 일하지요. 동료 병리의사들이 5명 있고, UPMC 계열이지만 커뮤니티 병원이라 레지던트 없이 단독으로 일합니다. 요즘은 현미경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판독을 하는 병원이 늘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유리 슬라이드를 직접 들여다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슬라이드를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면 장점이 많지만, 조직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 파일을 갖고 판독하려면 염색 기법 표준화나 인터페이스 보완 등 아직 더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슬라이드를 보는 시간은 참 즐겁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책임감도 들고 보람됩니다. 제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암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니 '조직 절편'이 아니라 '환자'를 본다는 생각을 하며 임합니다. 돌이켜보면 예전에 서울에서 첫 레지던트 할 때에는 슬라이드만 읽을 줄 알았지 환자를 떠올릴 줄은 몰랐어요. 나이는 어렸었고 수련 과정이 너무 바빴기에 자그마한 슬라이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연륜도 여유도 없었다면 변명일까요. 게다가 교수님 이름으로 판독이 나가니까 내 환자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배우기만도 바빴어요. 판독을 내고 내어도 끝없이 쌓이는 슬라이드 앞에서 기계적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세월따라 경험따라 이런 깨달음도 얻네요.

3. 병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tr. (UPMC)는 이름처럼 거대 복합체입니다. Pittsburgh, PA에 '본원'이라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고, UPMC system에 여러 커뮤니티 병원들이 포함됩니다. 제가 일하는 Passavant는 피츠버그 시 북쪽에 위치한 약 500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입니다. 평이한 케이스가 주종을 이루지만 대학에 연계된 병원이라 복잡한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19세기에 세워진 오래된 병원이라 이 지역의 랜드마크이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주십니다. 직원 중에서도 장기 근속한 분들이 많아서 저희 과만 해도 제 나이만큼 여기에서 쭉 일하신 병리 기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다. 저는 6년차인데, 병원 근무 환경에 만족합니다. 주변이 온통 주거 지역이라서 잠깐 땡땡이치고 밖에서 점심을 먹을 식당가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랄까요? 모교 병원에서는 정문만 나서면 식당들이 즐비했는데요. 출퇴근은 12마일 거리인데 교외라 많이 붐비지 않지만, 어느새 이 지역 인구가 상당히 늘고 길도 복잡해졌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 태워서 등교시키고 출근하는 소박한 행복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4.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제 학창시절은 비교적 단조로웠어요. 집-학교-도서관-임상실습 하다보니 시간이 다 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뭍어 지내고, 교수님들께도 많이 배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추억해보니 이야깃거리가 많지만 특히 본과 1학년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널럴하게 예과에 다니다가 본과에 진입한 직후라 고3 시절 마냥 스트레스가 많은 만큼 기억에도 많이 남았나봐요. 해부학 첫 실습시간은 당연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봄에 우리 학년 내에서 실험방별 대항으로 열렸던 중창대회가 예상 외로 즐거웠어요. 몇 방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김씨 후반에서 박씨 초반까지 묶인 3방이었나요? 그 방 친구들이 기막힌 선곡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관중의 호응을 가장 크게 받았었는데, 심사를 맡으셨던 모 교실 조교님께서 선정적(?)인 대중 가요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지, 저희 방(황씨까지 포함된 마지막 10방)에 훨씬 좋은 점수를 주신거에요. 저희는 건전하다고 해야하나요, 무난하다고 해야 하나요, '내일이 찾아오면' 이라는 노래를 선택했었거든요. 의외의 결과에 들뜬 저희는 당연히 호프집으로 몰려갔지요. 그 때 다함께 시원하게 잔을 비우던 맥주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또, 의대 정문에서 출발하여 이화 사거리와 원남동 사거리를 거쳐 병원 정문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뛰었던 '연건 마라톤 대회' 후에 몰아쉬던 거친 숨결, 4학년 졸업여행때 단체로 한라산 정상에 올랐던 희열, 여느 때처럼 수업 후 의대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하던 중 첫눈이 내려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몇몇이〈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5. internship도 안 해보고 해군 군의관을 시작하니 환자를 다룰때 두려움이 앞선다. 포항 해병대 대대 군의관으로 있을 때 의무중대 저녁 duty를 맞게 되었을 때 상사 군의관들이 해병장교 infant son의 pyloric stenosis 수술한 후 postoperative care를 나에게 맡겨놓고 귀가들을 하였는데 midnight에 periodic apnea가 오고 IV를 restart 하는데 너무 어렵고 nurse도 없이 all night long 진땀을 뺐던 기억은 지금도 악몽으로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보람된 경험은 WV 개업 시절 10살 먹은 아이가 hematuria가 오고 BUN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hemolytic uremic syndrome을 정확히 예측하여 helicopter로 Morgantown에 보내 renal failure를 예방하고 환자를 recover 시켜 큰 보람을 느꼈다.

6. 의대 학창 시절 중 우리반에서 6명, 이화여대 3명, 연대에서 2명(여자) group이 되어 predoctor's club을 만들고 격주로 종로 감리교 태화관에 모여 supervisor Ruth Stewart가 영어회화 모임을 가졌다. 박준영, 김인원 군이 영어 회화 실력이 특출하여 모든 멤버의 부러움을 샀다. 현재 김택수 군 부인은 그때 이화여대생 멤버였다. 졸업이 가까워 오자 우리 친척 아주머니가 되는 이대 가정과 졸업생 8명과 우리 group 8명이 brother's party를 이대에서 가졌다. 그중에는 consummation은 안됐지만 아름다운 로맨스가 꽃 피어지기도 했다.

7. 이생에는 임상 practice로 retire 했지만 다시 한 번 기회가 오면 끝내지 못한 genetics, 생명공학 reserch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8. 원래 미국 올 때 미국에서 살 계획은 처음에 없었는데 trainig이 끝나고 면허도 없이 practice할 수 있게 해주는 병원이 West Virginia에 있어 2-3년 일하다 귀국하려 했던 것이 practice가 의외로 크게 establish 되는 바람에 귀국은 커녕 큰도시로 나오는 기회도 놓쳐 애들 교육이 뒤떨어져 당황했다. 다행히 junior high 올라갈때 워싱톤 private school로 모두 옮겨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dormitory school life에 잘 적응하고 진학에 차질이 없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와중에 애들이 자력심이 생겨나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their life wits를 발견한 것이 대견스럽게 생각된다.

불교 이야기를 말하라 하시는데 사실 우리 동창 majority가 기독교이신데 불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외람되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내가 나가는 워싱톤 "동양정신문화 연구" 모임에서 강사이신 노영찬 목사님께서 종교 간에 서로 문호를 열고 종교관을 서로 나누는 것이(dialectical dialogue) 앞으로 바람직한 vision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나도 성경도 읽고 공부하고 또 내가 아는 원불교 교리도 타 종교인에게 설명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reconciliation을 가져 종교 간의 불화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원불교는 1916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새 시대에 맞게 새교법 (doctrine)과 교전(scripture)으로 만드신 새로운 불교다. 첫 번 표어(motto)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말씀하셨으며 불법을 생활에 끌고 들어와 생활화되어야 한다 하시며 불법시생활(佛法是生活), 생활시불법(生活是佛法)을 제창하셨다. Traditional Buddhism에서 미신적인 것과 불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진리의 모습, 부처가 깨신 그 마음자리 (불성)를 일원상으로 표현하여 Circle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신 것이 획기적인 start였다 하겠다. 3-4년 전 거의가 장로님이신 기독교인 10 커플과 과 Caribbean cruise 간 적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있는 아침기도, 아침식사 후 다락방 책 자공부 등 우리 부부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다. 하루는 장로님들께서 원불교 소개를 하라고 시간을 주셔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다.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인데 이 세상에 네 가지 은혜로 나타나 있어 사은(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 나타나 있고 수행은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로 3학이라 하며 수양 정진한다고 설명드렸다. YouTube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법륜스님께서 원불교와 불교의 다른점도 자세히 설명한 것도 video로 들을 수 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을 계속 유지하려면 몸은 음식과 breathing이 필요하고 정신은 sleeping과 meditation(좌선)이 필요하다. Sleeping은 뇌가 생각할 때 쌓이는 쓰레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hormone이 제대로 분비되도록 도와줘 뇌를 rejuvenate 시킨다. Meditation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적성성(calm and alert)한 상태에서 일심(one mind, concentration)이 되면 우주의 영(야회, 하나님, 성품, 불성, 알라)과 연결되는데 이 상태가 연속될 때를 대각 또는 성불(enlightenment)이라 말한다.

요사이 미국인들도 선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이곳저곳 mindfulness center가 성황을 이루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몇 마디 지껄였는데 읽으신 분이 첫마디에 이해하신다고는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이게 무얼 말하는 거지?" 하고 curiosity만 inspire 시켜 드렸다면 고맙고 감사하겠다.

9. 골프를 일주에 2-3 round 돌고 차를 안 타고 18 hole 걷는 것을 작년까지 고집하였는데 금년에 80이 되니 club에서 cart 무제한 무료로 탈 수 있다 하여 cart를 타지만 되도록 많이 걸으려 노력한다.

바둑에도 취미가 있어 Dr. 진창건, 박인영 님과 같이 Dr. 서휘열 님 댁에서 열전을 벌이기도 했다. 임락준 선배님, Dr. 이종두 군도 바둑 애호가이시다. 몇달전 동창회에 참석해주신 이종수 선배님의 바둑 실력은 pro 단급이란 소식에 언제 한번 모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담배는 80년대에 어느 하루 wife에게 Kent 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같이 갔던 딸 Sonia가 cart에서 치워버리고 엄마에게 "아빠 cancer 걸리길 원하냐"고 blame 하였단 말을 듣고 그날로 담배와는 영원히 goodbye 하였다.

10. 너무들 잘들 하고 계셔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모두 같이 협력하여 시계탑 lomgevity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의 이세들도 medical doctor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 둘째 딸도 interventional radiologist 입니다. Tufts Med School graduate). 이들에게도 영어로도 좋으니 article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죽음은 없다

강 수 상(53, 시카고)

지금의 내 삶이 있기 이전이 얼마나 흘렀으며 있고난 이후 흘러 갈 시간은 얼마가 될 것인지, 극한사상의 개념을 적용한다고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지난 어제와 앞으로 올 내일 사이의 한 토막인 오늘을 사는 내 삶이 내가 가진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만인 일인데도, 이런 일에 얽매여 인생이 이것뿐인가 하는 허망한 감정을 털어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생사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날까지 일관되게 다루어오며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있는 과제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그리스 시대부터 서구학계는 오랫동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즉 순수철학(형이상학)적 접근으로 그 해답을 찾으려 해왔다. 그러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만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초자연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며 변화가 왔다. 난해한 해석에 얽매인 관념사상에서 자연과학이 밝혀낸 인간과 자연이 가진 구체적 사실들을 토대로 분석과 물리적 과제로 접근하면서 학자들은 우리가 가진 실상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이날까지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새 역사가 온 것을 의미한다. 삶과 죽음의 문제도 현재까지 밝혀낸 분석되고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들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리가 바로 선 지적인 해석을 얻어보려는 의도에서 자연과 인간이 가진 불가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인간의 고유한 영속성(永續性)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며 가슴을 채우는 삶의 궁극적 질문을 던져본 것이 이 글이다.

육신의 근원과 본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가다 보면 거기에서 나와의 관계를 찾아보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뜯어보게 되는 기회가 된다. 세상이란 좁게는 보통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를 말하지만, 크게는 온 천하 즉 모든 것의 총체인 우주를 뜻한다고 본다. 내가 태어난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사회를 형성하는 무수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공동체로 발전되어 이 지구를 채우는 인간의 세상이 생겨난다. 그러나 태양계의 한 별인 이 지구에서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종류의 생물 가운데 사람은 그 하나일 뿐이다. 생물의 크기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전자 현미경이 없으면 볼 수도 없는 미생물인 바이러스에서 천년을 사는 열 길이 넘는 삼나무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생물들이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이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물론, 자연과의 관계를 찾아가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밝혀질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생존에는 유기물질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생물에서 얻은 물질이 식품에 포함되지 않으면 동물의 대사(代謝)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다른 생명체의 체성분을 섭취 분해하여 사람의 체성분으로 변화시키는 동화작용과, 둘째 이미 몸 안에 있는 체성분이 변성되어 생긴 노폐물을 분해 제거하는 이화작용, 그리고 셋째 이런 작용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대사작용으로 사람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 한 개체가 생기고 성장하고 번식하는 과정의 모든 절차가 근본적으로 이런 대사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사는 생명체에만 있는 유기물질로 시작되는데 그 전단계인 유기물질의 합성은 식물에서만 가능하다.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햇빛 에너지의 도움으로 물과 공기 그리고 무기물질로 유기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의 대사가 작동될 뿐 아니라 이런 기능이 없는 다른 생물의 문제도 식물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인간의 생존이 세상과 엉킨 관계는 절대적 조건이며 육체적 정신적 활동의 근원은 인간이 가진 대사활동에 근거한 것이다. 이 과정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같은 다른 생물에서 얻은 유기물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유기물의 출처는 무기물질이 햇빛 에너지의 작동으로 광합성이 되어 만들어졌으니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은 우주에서 생겨난 창조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대사활동이 정지되면 그 분신(分身)은 지구의 수많은 구성 물질로, 그리고 생물의 체성분으로 변화가 계속된다. 그뿐 아니라 이런 변화는 대사의 한 과정으로 생체 안에서도 부단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계속되어 7년이면 육신이 가진 어느 성분도 교체되지 않은 것이 없게 변하면서 생명을 유지한다. 이 사실은 대사가 계속되면서 육신의 구성 물질이 교체되었다고 해도 대사과정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이 유지된 탓이다. 체성분의 교체를 세포로 바꾸어 예를 들면, 피의 적혈구는 120일을 사는데 하루에 수백억이 없어지며, 새 세포로 교체되는 간단없는 일을 하고, 정상 수치를 유지하며, 폐에서 산소를 받아 조직에 공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한 육신은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던 물질로 만들어졌고, 다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없어진다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순환 과정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간단없이 일어나는 현재의 일이며 동시에 우주의 생성과 함께 생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속된 일이다. 예로 Homo sapiens인 현대인의 역사는 50만년이 안되지만 2억년 전에 공룡의 폐를 거쳐 간 산소가 지금 내 몸을 돌고 있는 적혈구의 산소로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2억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고 긴 여정을 이어가며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나를 만들고 있는 분신은 내 육신에 있거나 육신을 떠났거나 상관없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이고, 내 육신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관계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확실한 사실은 내 육신의 대사활동이 없이 내 육신이나 정신기능의 작동이 있을 수 없으며, 대뇌의 감각 통합, 즉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력 같은 인지기능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 사실은 육신없는 인간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필수조건이 빠진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의 특성과 영속성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익히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 현관으로 몰려나가 구경하던 장면도 떠오르네요. 그 때는 버겁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우리 학년은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렇다고 다시 의대 공부를 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같이 했으니까 했지 혼자 했으면 못했을거에요. 이십대로 나이를 돌려준대도 못합니다. 올 2월에 졸업 20주년 행사에 참석하러 서울에 가는데, 이야기를 할 수록 부쩍 친구들 얼굴이 보고싶어 설레이네요. 2020년 2월 22일, 날짜도 재치있게 정했지요? 곧 만나자 친구들아.

5. 학생 때 아버님(황용승 교수님, 75졸)이 모교 병원 소아과에 계셨는데, 학교생활 하기가 어땠나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년 중 남학생 3명의 아버지들이 교수로 계셨잖아요. 3학년 소아과 실습 때 마침 저희 조에 그 중 2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아과 레지던트들이 부담스러웠는지 서로 교육 담당(education chief resident) 맡기를 미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해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는데 말이지요. 어릴 때에는 잘 몰랐는데, 본과에 와보니 아버지께서 학내외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늘 신기했던 점이, 퇴근 후 집에 오셔서 한 번도 피곤하거나 힘든 내색이나 불평 한 마디 하신 적이 없는 거에요.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여러 일이 많으셨을텐데 말이지요. 그 궁금점이 지난 연말에야 풀렸습니다.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미서부 여행을 했는데, 아침에도 제일 먼저 일어나시고, 여정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하시는 거에요. 저는 단순하게 아버지 체력이 여전히 좋으시구나 생각했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다만 티를 내지 않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안사람이 살짝 말해주었어요. 그런 신조로 살아오셨음을 깨닫고는 많이 놀라고 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호랑이라면, 저는 고양이급이랄까요, 제게는 큰 분이세요.

6.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주말에는 주로 아이들 액티비티 따라다니며 운전해주는 것이 큰 일과에요. 제 또래 다른 분들도 비슷할 것 같네요. 저는 큰 딸(16세)과 작은 딸(7세)이 나이 차이가 있어서 둘이 하는 활동이 많이 다릅니다. 하다보니 저는 주로 작은 딸의 주말 담당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아이 엄마가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주말이나마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무엇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지는 아직도 가끔 흔들립니다만, 정직과 배려를 중시합니다. 정직과 배려가 마음가짐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도 종종 잘 되지 않는 덕목이라 가르치며 배운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 전반이 공부 앞에 다른 것들이 용서되고, 앞을 보고 사는 분위기라 잘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는 일상에 배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7. 바쁜 중에 체력 및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흰머리가 슬슬 날 시기인데, 염색은 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네요. 운동을 별로 즐기지 않고, 일을 하든 쉬든 앉아있는 것이 편하거든요. 병원에서도 동결진단이나 on-site evaluation이 별로 없는 날은 거의 꼼짝않고 앉아있습니다. 안사람이 저를 많이 다독여서 조금씩 운동을 하긴 합니다. Elliptical, body pump, plank, stretching 등을 섞어서 한 주에 2-3번 씩 한번에 30-45분 정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그쳐주지 않으면 꾀가 나서 슬며시 안 하다가 가끔 혼나기도 하지요. 제가 잘못한 것이라 대꾸도 못합니다. 머리도 할 얘기가 좀 있네요. 흰머리가 나기는 하는데 염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체 머리숱이 많은 편이 아닌데다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검은 머리든 흰 머리든 일단 붙들어두는 편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생 때 배웠던 소아과 최용 교수님(69졸)처럼 멋진 romance gray가 제 로망인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8.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언제인가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요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 먹는 시간, 그리고 자기 전에 작은 딸 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아이가 7세가 되니 어린이 대상의 책이어도 꽤 재미있더라고요. 가끔은 딸보다 제가 더 열중해서 읽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이 종종 힘들 때가 있었지만, 아마도 가장 고달팠던 때는 레지던트, 펠로우 하던 때 같습니다. 그 때 큰 아이가 프리스쿨-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을 거쳤는데, 집세가 저렴한 곳은 안전 및 학군 문제가 있어서 집세가 비싼 교외의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집세 내고 나면 월급이 정말 얼마 안남았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다가, 192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 구조가 답답하고 빛이 잘 들지 않아 힘들었을 안사람에게 많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니 서울 생활과 달리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길어져서 좋으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9. 새해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거창한 소망이나 계획은 없고요, 매일매일 할 것 하고 지내는 것이 짧은 목표이고 가족들의 건강이 소망입니다. 부모님도 장인장모님도 이제는 연세가 드셨어요. 음,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믿음직한 병리의사가 되어서 환자들과 그 환자들을 돌보는 임상의사들이 항상 믿고 찾을 수 있는 병리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를 맡아도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분야에서의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10. 미국에서 수련받기를 원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우리 후배님들이라면 모두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배우고 술기를 익히는 것은 의사로서 가장 기본이니 한국, 미국, 어디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거기에 더해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애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아 온 서울의대 선배님들, 동기들, 후배님들 모두 다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어요. 병원 밖의 삶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와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오히려 병원 밖의 삶, 제가 지녔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 박은경 동문 가족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울어라

안세현(68, 버지니아)

뮤지컬 EVITA에서는 "Don't cry for Argentina"라고 했으나 나는 "Cry for Argentina"라고 말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낭만의 나라, 오대 미항(五大美港)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 나라, 이민을 온 노동자들이 추던 탱고 춤의 나라, 싸고 품질 좋은 쇠고기의 나라, 세계 삼 대 폭포 중의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가 있는 나라, 남극과 가까운 파타고니아가 있는 나라" 등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난 10년간 다섯 번 방문(과라니인디오를 위한 의료선교)하면서 그러한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커져가고 있다. 이 나라의 데모는 유별나서 고속도로를 막고 여덟 시간 차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우리 팀은 지금까지 세 번 꼼짝없이 당했다. 한 번은 전국적인 파업으로 비행기가 뜨지를 않아서 하루 호텔 신세를 졌다. 이 나라 국민들은 이런 데모나 파업이 합법적이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일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못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외국인인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것이다.

이 나라의 창립멤버들은 French Motto (liberty, equality, fraternity)를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한때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 광대하고 기름진 Pampas 광야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특히 쇠고기의 수출은 유럽을 매혹시켰다. 북유럽인의 이민이 증가하고 공업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Populism이 경제를 망치기 시작했다. Eva Duarte는 시골 출신이며 야망이 큰 절세의 미인으로 일곱 번의 남성 편력 끝에 한 라디오 방송국의 사장 겸 성우가 되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매일 그녀의 방송을 들으며 잠을 청했다고 한다. 1946년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녀는 퍼스트 레디가 되었다. 그녀는 노동 계급과 농민 계급에게 최대의 복지정책을 썼다. 그녀의 사회주의 이념은 동향인인 체 게바라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중남미 전역에 혁명을 일으켰다. Eva Peron은 중남미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며 그녀의 동상은 노동성 건물을 바라보면서 높이 서 있다. 그녀의 묘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이런 Peronism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는가? 대학교육까지, 심지어는 의과대학까지 공짜다. 18세가 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대학으로 진학하면 우선 돈을 벌 수 없으니 국가에서 먹여주고 공짜로 공부를 시켜줘야 한다는 이론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두 배로 올려 준다. 그러면 물건값은 세 배로 뛴다. 본인이 지난 6월에 갔을 때 Inflation이 일 년 만에 100%였다고 했는데 4개월 된 지금은 또 30%가 올랐다고 한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됐다면 대통령은 벌써 탄핵을 당하고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본가들은 자기 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등 서방 나라로 돈을 빼낸다. 한때 자존심이 높았던 이 나라는 IMF 에 걸린지 오래되었고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아직도 Peronism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Don't cry for Argentina"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를 위해 통곡을 할 때다.

한시漢詩 소개와 해설

정 관 호(63, 대뉴욕)

山中問答산중문답 李白이백

問余何事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閒
문여하사서벽산고? 소이부답심자한을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도화유수요연거하니, 별유천지비인간을

해설: **산속에서 문답하다. 성당 시선 이백**

내게 묻기를 어찌하여 푸른 산에 사느냐고,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한가로워.
복사꽃 흐르는 물에 아득히 가버리니,
별로이 천지가 있고 인간세상이 아니로다.

소감: 어머니께서 자주 애송하시던 시 였다. 혹시 연못 별당에서 차를 마시면서 읊으셨던가? 아니다. 부산 피난 시절에 보수동 초가집 맨 끝 행랑방 밖에서 풍로에 밥과 국을 끓이시면서 소녀 시절에 배우셨던 어머니 애호시를 읊으셨다. 어머니도 이태백처럼 먼 산속에서 깨끗이 살고 싶으셨겠지. 지금 나 사는 곳이 그 못지않게 좋은데 이런 곳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음이 너무도 애석하고 죄송하다. 그러기에 이 불효자에게는 어머니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

〈전면에서 계속〉 들어온 우리는 주위에 많은 동식물을 돌보고 키우며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출생 후 일 년이 지나서부터는 발로 걸어 다니며, 언어로 의사교환을 하고, 의식주를 갖춘 환경에서 많은 기구를 사용하여 크고 작은 활동을 즐기며, 사회생활을 경영하고, 문화를 창조하여 새 세계를 개척하는 모든 것은 사람만이 하는 일로 알고 있다. 이 일련의 성취가 다른 동물과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사람과 동물의 생물로서의 관계는 뇌의 기능, 특히 인지기능과 연관되는 분야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게 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동물이 앞선 경우도 적지 않다. 학자들이 여러 분야의 과제를 가지고 연장류 뿐만 아니라 가축 설치류를 포함한 포유동물은 물론이고 조류와 파충류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 기능을 탐색한 결과는 대단하다. 그들이 연구한 분야인 지각작용, 주의력, 사고력, 개념 파악, 기억력 그 밖에 추리력, 문제 풀기, 언어 사용력, 통찰력, 계수법, 지성, 지각의식 같은 연구 결과로 관찰된 특수한 능력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런 견해를 요지부동하게 못 박은 것은 세균은 물론 원시 생명체인 아케어(archaea)에서 시작해 사람까지 모든 생물이 동일한 유전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물간의 친소 관계는 유전자의 동일성과 직결되는 데서 입증되었다. 사람과 지능이 제일 가깝다는 침팬지는 유전언어의 90퍼센트 이상에서 인간과 동일성을 가진 것이 한 예다. 한 개의 수정란에서 출생한 쌍둥이들 간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성격, 지능, 습관을 위시해서 모든 유사성은 오래전에 확증을 받은 사실이다. 한편 근소한 유전자의 변이로 오는 육체나 정신 기능의 심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지만, 특히 육신이 대사반응의 장애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정신 활동의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은 체질의 변화가 어떤 이유로 오면 정신 기능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점은 정신작용의 총체를 초자연적인 존재로 묶어 영혼이라 부른 역사를 이해하게 하는 한편, 이 이상 대사 없는 영혼의 이야기는 끝이 났으면 한다.

인간의 영속성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체의 생존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인류 존속 문제로 다루어 볼 때 그 의미가 깊이 수긍되는 길이 찾아질 것이다. 어느 생명체나 대사과정으로 생명력이 작동되는 과정에는 한정성이 따른다. 성장 과정이 성숙되면 결국 이화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의 완전 수복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의 보존이라는 생식의 방편이 짜여져 있어 이런 변화에 선행해서 새 생명체의 교체로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인간의 영속성은 한 개체 안에서 수복되는 절차가 아니라 수복이 한계에 이르기에 앞서 생겨나는 새 생명체로 전수된다. 이러한 체제는 한 특정한 개체의 계속성의 문제를 한 생명체의 영구적인 존속이라는 시야에서 풀어낸 차원 높은 성질의 구도이며 인간의 경우도 예외가 될 일이 아니다.

성인 한 사람은 수백조의 세포로 되어 있고 각 세포마다 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염색체를 가졌으니 한 사람이 지구의 인구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인구로 변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모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로 분화되지 않는 한, 세포는 이디까지나 한 인간을 구성하는 분신일 뿐이다. 대사가 정지된 육신의 세포는 세포가 가진 기능도 없어지고 오직 분해되어 무수한 분신으로 새로운 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인지기능도 대뇌의 대사기능에서 오는 것인데 인지기능이 없어지면 정신활동이 있을 수 없어지고 생리적 영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지기능으로 창제된 정신적 산물의 경우는 다르다. 정신적 산물과 이것을 의미 있게 소화하고 새 창조를 유도해 내는 정신력이 연결되는 전수의 길이 있다. 이 사실은 생물학적 세대간의 전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속성의 존재를 말한다. 인간의 인지기능에서 피어난 고유한 개성 인품 더 나아가 창조한 사상과 업적은 여러 가지 길로도 전파될 뿐 아니라 새로운 업적들을 꽃 피게 한다. 한 육신의 대사가 있을 때는 자기 안에서 생물학적 전수가 일어나지만, 대사가 멎는 것과 관계없이 한 인간의 정신적 산물이 이 산물의 독창적 특성을 알아내는 정신력에 창조의 탄생을 유도하는 전수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적 산물과 육신이 가진 정신기능 간에 교신되는 새로운 성질의 영속성이다.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는 생물학적 영속과 창조전수(創造傳受)의 영속이라는 두간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생명체가 가지지 못한 특성이다.

궁극적 질문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물과 만물이 시간과 거리를 초월해서 서로 변화하며 상상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없는 일을 부단히 창조하며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이 우주이다. 거기에서 내가 생겨났고 나를 구성한 무수한 분신은 부단한 대사의 지속을 반복하며 손상과 수복의 과정이 한계에 이르기 전에 나라는 개체는 새 개체로 교체되고 나는 우주의 무한한 분신으로 변화된다. 내가 창조한 일들이나 생각들은 어떤 형식이나 방법으로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전달되는 역사가 이어진다. 이것 이상으로 더 바라는 보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데도 한편에는 사리를 떠나 나 자신의 무리하고 무모한 소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얽매이는 심정이 바로 나도 모르게 나를 서글프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생각해 보자. 죽어서 지금의 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받아진다면, 우주 안에서 내가 분신으로 변화를 반복하며 존재한다는데 가슴의 평온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선현들에게서 분에 넘치는 대단한 유산을 받아 그 덕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꿈같이 눈부신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혜 넘치는 사고력으로 부닥치는 문제를 풀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인간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가 생겨나는 일이나 끝이 없이 많은 일을 가진 이 우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전모에 대한 수 없는 질문들은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모든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인류 문화는 인간의 영속성에 가속도가 가해지며 발전할 것을 믿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질문은 끝없이 많아만 질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 질문에는 변한 것이 없다. 한결같이 가고 있는 시간을 따라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생각하며 한 세대를 살며, 때가 되면 육신은 자연의 분신으로 변화하고 인간으로는 세대의 교체와 정신기능의 전수로 영속성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시대가 가진 환경이 다른 분위기를 만들며 달라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순리로 풀어내는 가슴, 그것은 숭고한 초 감성에서 피어난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개념을 벗어나 가슴에 와닿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찾고 있는 현대 종교의 시도가 이런 면에서 상통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문화적인 시각에서 종교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에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연결되는 기회가 생겨서 우리들의 참모습을 슬기롭게 감당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육신의 분신론과 인간의 영속성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추출해내는 이 노력이 궁극적 해답인가 하는 데는 여운이 남는다. 그러나 진솔하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내 삶에 승복하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 추리와 분석을 거쳐 문제를 풀어 감회 넘치게 살아가며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크고 작은 일에서 주저하지 않는 마음으로 즐겁게 나를 버리며 평안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이지적 분석에서 얻어낸 관단을 거쳐서 가슴에 차오는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겠다.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서울의대 23회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을 마치고

서 량 (69, 대뉴욕)

동대문에서 서울의대 쪽으로 걸어간다. 옛날에 잽싸게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으니까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이 그러려니 했지. 횡단보도 신호등마다 매번 저지당했다. 전후 사방 어디를 봐도 인파가 넘실댄다. 내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연현상은 횡단보도 때문이다. 의대 정문 도착까지 40분도 더 걸렸다.

나는 왜 과거에 매달리는가? 이번 졸업 50주년 기념여행은 뭐니뭐니 해도 과거를 재확인해 보고 싶은 속셈이 가장 큰 이유였고, 색소폰 축하연주를 해줄 친척 결혼식도 큰 핑계였다. 10월 2째 주 합춘문예회 시화전에 곁들여진 뉴저지 출신 의사시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 대한 좌담회 예정도 전혀 무시 못한다. 아무튼 그날 옛날 교정을 혼자 가보고 싶은 충동을 나는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것 같다.

옛날 서울의대 수위실의 '엄씨'라는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분의 걸음걸이마저 기억난다. 수위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타날 제1강의실과 반대쪽 제2강의실을 찾아 헤매다가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병원 쪽으로 가는 언덕길에 들어선다. 시계탑 앞 벤치에 앉아 쉬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마침 또 날씨는 사진 찍기에 최적이었다.

사정이 있어 모교방문과 남산 투어에 참가하지 못했다. 늘 면밀주도한 동기회장 김원동이 이메일을 보내줬다. 말 몇 마디를 고쳐서 그 이메일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 김원동은 감성을 배제하고 드라이한 분위기를 풍길 때 매우 쿨하다.

--- 10월 14일, 월요일아침, 서울의대 제공버스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의대 본관에 도착. 현대식으로 단장된 3층 강당에서 23회 졸업 50주년 모교 방문 기념식이 있었다. 신찬수 학장, 정승용 서울대학병원 부원장, 이나미 동창회 부원장의 인사말 후에 본인이 동기를 대표하여, "저희가 50년 전 모교에서 배운 의학 및 의술로서 긴 시간을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의료를 시행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음이 모교로부터 받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우리들이 모은 서울의대 도서관 건립기금 2500만원을 본인이 신찬수 학장에게, 김중권 동기가 이나미 동창회 부회장에게 동창회 발전기금 일천만 원을 전달했다. 본관 앞과 지금은 없는 해부학 실습실 앞 큰 나무와 병원 시계탑 앞에서 기념촬영이 있었다. 의학박물관을 방문 중 옛날 강의실이 남아 있지 않아서 동기들은 아쉬워했다. 병원 투어에서는 전에 없던 레스토랑 등, 신설된 환자 편의시설이 눈에 띄었고, 의생명연구원 11층 가든 뷰 식당에서 창 밖의 창경원을 바라보며 오찬을 마쳤다.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을 거쳐 남산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조망하고 일부는 남산타워에 올라 많이 발전하고 달라진 서울시내를 감상했다. ---

같은 날 저녁, 기념만찬이 열리는 롯데호텔 37층에 옷 매무새를 고치며 들어선다. 떠들썩한 장내가 눈부시다. 사회를 맡은 김건상이 똘똘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나를 반긴다. 더러는 졸업 후 처음 만난 것 같다. 평생을 묵묵하게 지낸 듯한 최윤식이며, 잡은 손을 놓기 힘드는 김태운이 그랬고,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최황, 윤경선, 박찬일, 심윤상이 또한 그러했다. 서만길 형, 황정수, 이종성, 송인경, 엄융의, 염광원, 최강원, 조맹기의 생김새도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나중에 합세한 박장부는 훤칠한 키와 생김새가 아비를 능가하는 아들을 대동한 것이 아닌가. 엄대용 형, 심영수, 이양우, 오선웅, 이도영, 김유영은 수년인지 수 십년 전쯤에 한 두 번 만난 기억이 뚜렷하건만. 허기사 요즘 10년 20년은 세월도 아니다.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10년이다. 박건영과 신현정은 여행 중에 새삼 다시 사귀는 느낌이다. 우리 102명 중 먼저 세상을 떠난 16명의 동기들에게 안부를 묻듯 고개 숙여 묵념을 했다. 더러는 눈을 필요 이상으로 질끈 감는다. 나도 그랬다.

안병일이 그 전날 귓속 달팽이관에 돌발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김종화 아들이 기적처럼 고쳐줬다는 뉴스가 있었다. 오경균 형이 옛날에 뉴욕에서 텍사스로 떠날 때 자신이 불던 클라리넷을 내게 줬던 기억을 되살려 언급한다. 우리 중 일부는 왜 악기를 익히려고 동분서주했던가. 목관 오중주를 한답시고 군화를 신은 발로 쿵쿵 박자를 맞추어 음정, 박자를 맞추며 오보와 바순을 불던 김치동과 민병길 생각도 났다.

동기들 앞에서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를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곡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훈아 노래로 해라"하며 신영수와 차창용이 소리친다. 이들의 목청과 언변에는 도무지 막힘이 없어요. 윤효윤이 좋은 즉흥연설은 준비하는데 3주 이상이 걸린다는 마크 트웨인의 명언을 설파한다. 근데 나는 이 곡을 얼마나 연습했던가.

나훈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듣고 '오륙도'를 무작정 좋아한다. 하지만 오륙도는 우체국과 편의점이 있는 섬마을이 아니라 집 한 채도 지을 수 없는 돌덩어리들임을 그날 알았다. 현실의 섬보다 노래 속의 섬에 홀딱 반해서 반평생을 지내온 나다.

경주 양동마을을 둘러봤다. 500여년 전 명문 대가의 건축 양식이 경이롭다. 전통 기와지붕의 모서리가 하늘 쪽으로 치켜진 부분을 보면 좀 무서워진다. 집채가 하늘로 날아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식 고층 빌딩에는 이런 자세가 약에 쓸려고 찾아봐도 없어요. 풍수지리 운운하던 우리 선조들이 내심 지독한 경천사상(敬天思想)을 품지 않았나 싶지.

안동의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을 살핀다. 천 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퇴계 이황의 얼굴이 옛날 서울의대 수위실 엄씨 만큼이나 친숙해 보이는 게 이상하다. 잘 보면 서로 닮았다. 그의 사단칠정(四端七情) 학설보다 명기 두향(杜香)과의 러브스토리가 더 기억에 남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앞을 가린다. 역시 역사에는 여자가 끼어야 제 맛이 난다.

그날 밤은 가라오케 노래방 순서. 김중권 형의 잠재적 Y당 마인드와 내가 남을 선동한다. 아내들이 '그대 없이는 못살아'를 제창하며 심하게 몸을 흔든다. 김윤성의 무반주 노래 '언제까지나'의 가사가 수상하다. 나이 지긋한 우리는 그런 농담을 밝힌다. 술이 자꾸 먹힌다. 변영석 형이 무슨 노래를 했지. 김윤태는? 김창남이는 일찍 떠나서 자리에 없고 한오수가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끝 무렵, 모두가 손을 잡고 '만남'을 힘차게 부르던 중, 아뿔싸, 이숭공이 졸지에 풀썩 주저앉는다. 최용이 그를 응급실로 데려갈 것을 제안한다. 다음날 이숭공은 역시 다시 원기왕성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술이 좀 과했다는 여러 아낙네들의 애정이 듬뿍 어린 지적이 있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고려시대에 만든 108계단을 오르면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노구(老軀)를 학대했다.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신체현상을 절감한다. 의상대사와 선묘(善妙)낭자의 사랑에 힘입어 무거운 바위가 붕, 떠있다는 부석사(浮石寺)의 의미를 들입다 짓씹으면서. 선묘낭자라~!

버스가 롯데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헤어지는 아쉬움에 몸서리치며 나는 도중하차했다. 그렇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의 현재가 바로 과거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포크너의 말처럼. -- 과거는 결코 죽지 않는다. 심지어 과거는 지나가지도 않는다. (The past is never dead. It's not even past.)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부랴부랴 쓴 졸시(拙詩) '씨족사회'를 끝으로 꿈결 같은 졸업 50주년 기념관광,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융합된, 카페 올레같은 감미로움이 나를 엄습한다. 심신이 나른하다.

양동마을을 / 가을바람이 휘감아 오른다 / 무 배추 지렁이는 고사하고 / 마을 사람 눈 코 귀에 맴돈다 / 소문이 소문에서 그친 것만은 아니었다 / 서원과 기와집을 다투어 세워가며 / 이름 석자를 남기려는 속셈이었지 / 양동마을 양반동네 종갓집 구름들이 / 무명 옷을 걸치고 집을 나온 / 오늘은 타운 홀 미팅이 열리는 날 / 반 백 년 전 헤어진 서울의대 / 23회 동기들이 다시 모이니까 / 무 배추 지렁이는 고사하고 / 양동마을 풍수지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 보이느냐 이 혈기왕성한 씨족사회가.

한국은 왜 유일한 분단국가일까요 (2)

2019 미주서울의대 Medical Convention non-CME 강의 초록

온 기 철 (71, 남가주)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적폐청산

1864년, 12살난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옹립한 이하응 흥선 대원군은 섭정을 하게 되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권토중래, 김씨에게 빼앗겼던 권력을 왕족인 이씨가 되찾은 것입니다. 대원군은 세도정치의 병폐를 척결하여 백성들 생활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은 근대사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던 시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유명한 쇄국정책은 이웃 일본의 명치유신, 청의 양무개혁에 비하면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2년후인 1866년 민비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민비와 대원군은 민비가 살해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권력다툼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은 뒷전이었습니다.

대원군의 퇴장과 조선의 개방

약 10년만인 1873년 고종이 20세 되던 해에 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원군 때부터 일본은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했으나 조선은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유일한 무역 창구는 대마도를 통한 부산의 왜관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조선을 무력으로 정벌하자는 정한론과 일본이 힘을 기른 후에 조선정벌에 나서자는 온건파가 서로 대립하다가 온건파가 집권하여 적극적인 외교에 나서게 됩니다. 일본은 청과 조선이 종주-종속 관계에 있음을 잘 이해하고 조선에 직접 통상을 강요하기 전에 청과 접촉했습니다. 한편 청은 서양국가에게 이것저것 영토를 양보하고 조공국을 서양 국가에 영향권으로 넘겨주게 되자 조선이 자기네 영향권에서 벗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약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 청이 조선을 도와 전쟁을 할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의 이홍장은 고종에게 일본을 비롯한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조약을 맺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견제해서 조선을 청의 영향권에 잡아 놓으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이 청에게 접근하여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을 터이니 청이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이홍장은 일본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고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운요호 등 군함을 끌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나타나서 함포사격, 시가지 행진 등으로 위력을 보이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운요호 사건이라고 하는 데, 이것은 일본판 대조선 미국 페리제독의 흑선사건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잘 써먹었습니다. 1877년 2월 조선 최초의 통상조약인 병자수호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통상조약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은 아무도 외교 조약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세가 무엇인지 몰라서 관세 없이 일본 상품이 조선에 수입된다는 문서에 조인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이익만 나열해놓은 불평등 조약이었으나 조선 조정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오군란과 대원군의 쿠데타

고종은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 교관이 훈련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양반자제들이 많이 참여했고 구식 군대에 비해서 훨씬 대우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구식군대는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오랜만에 나온 월급은 모래섞인 쌀이었습니다. 이에 분개하여 구식군대는 반란을 일으켰고, 대원군은 이들을 이용하여 민비 세력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신식 군대를 만든 것은 민비 세력이었기 때문에 구식 군대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구식 군대가 했지만 안동 김씨보다 더 심한 민씨 세도정치에 불만을 품은 많은 백성들이 합세했습니다. 대원군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란군은 민비를 살해하려고 궁을 이 잡듯이 뒤졌으나 이미 궁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민비는 충주에 숨어서 청에 원군을 요청했고, 이홍장은 조선을 청이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군대를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청군은 대원군을 체포하여 텐진에 구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원군의 33일 천하는 끝납니다. 이후로 청은 묄렌드로프와 마건충이 조선 조정에 파견되어 내정간섭을 하고 용산에 청군을 주둔시켜 조선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구식 군대)

물론 고종과 민비는 복권되었으나 정계는 온건개화파 친청 사대당으로 개편됩니다. 사실상 청과 일본은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대립했으나 일본은 청과의 정면대결을 피했습니다.

1880년대의 조선정국

고종은 근대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청, 일본, 미국 등에 사신을 보내어 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정계는 청나라의 양무개혁과 같은 점진적인 개혁을 하자는 파와 일본의 명치유신과 같은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파로 갈라집니다. 전자를 친청 사대당이라 하고 후자를 친일 개화당이라고 했습니다. 온건개화파인 사대당 뒤에는 청의 이홍장이 있었고 급진 개화파인 개화당을 보살피는 인물은 후쿠자와 유키치였습니다. 후쿠자와는 일본이 서양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집권층은 물론 사대당이었고 고종과 민비는 중국(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래의 사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화당은 조선이 망해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청에 종속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옳은 생각이었지만 당시의 청과 조선의 분리를 대조선 책략으로 하고 있던 일본이 후쿠자와를 통해서 이 점을 개화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난학의 발달로 일찍이 "중화사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명치유신으로 유교사상을 버리고 완전한 서양화에 매진합니다. 이것이 후쿠자와가 외쳤던 "탈 아시아" 입니다. 그러나 수구보수파인 위정척사파는 반일 감정에 휩싸인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정파였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민씨 척족들이 이끄는 사대당은 개화당을 탄압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개화당은 후쿠자와, 그리고 일본영사관과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직 청나라와 정면으로 대립할 의지가 없었던 일본을 지나치게 믿고 치밀한 계획 없이 일으킨 거사는 3일만에 청의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실패로 끝납니다. 위안스카이는 총독과 같은 조선의 감국이 됩니다. 그는 고종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1885년 5월, 이홍장은 이토 히로부미를 텐진으로 불러서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의 요점은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반드시 통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원군은 같은 곳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조선 직접 통치는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개화당은 전멸하고 집권 사대당의 권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민씨 세도정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1894년: 동학란, 청일전쟁, 갑오경장

곪아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동김씨 60년, 대원군 10년 반짝하다가, 다시 나타난 것이 민씨 척족입니다. 민씨 세도정치는 안동김씨의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극심한 양반계급의 착취는 천도교를 탄생시켰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백성들 간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하고 천도교를 동학이라고 했습니다.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학정에 못 이겨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군은 반란군을 자체적으로 진압할 수 없게 되자, 청에 원군을 청했습니다. 청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자 일본은 청이 텐진조약을 위반했다며 자기네 군대도 조선에 보냈습니다. 자연히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를 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정식으로 선전포고하기 전에 인천에 군대를 상륙시키고 곧바로 한양을 점령하고 경복궁을 제압합니다. 일본 장교는 칼을 뽑아들고 고종 앞에 나타나서, 폐하를 보호하려고 왔다고 아룁니다. 그리고 고종을 협박하여 조선정부가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조달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대원군을 복권시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얼굴마담 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복궁 쿠데타라고 합니다.

일본은 개화당을 복권시키고 군국기무처를 만들어 개혁을 실시하게 하니 이것이 소위 갑오경장입니다. 당시의 조선이 청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은 청과 일본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착취 당했습니다. 조선은 대리전쟁의 병참기지였습니다.

시모노세키조약, 민비의 친러정책

일본이 요동반도와 발해만을 장악하자 이홍장은 협상을 요청합니다. 발해만은 한국의 강화도와 인천과 같은 곳입니다. 북경이 위험하게 되는 급소입니다. 청이 일본에 항복한 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홍장이 일본 시모노세키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와 협상을 했습니다. 이홍장의 양무운동이 일본의 명치유신에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95년 4월 17일 이곳에서 맺어진 조약의 제1조는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확인한다" 였습니다. 청은 이제 조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은 일본에게 요동반도, 타이완, 펑우제도를 양도합니다. 일본의 숙원이었던 청과 조선의 분리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6일만에 일본주재 러시아 대사가 독일과 프랑스 대사를 대동하고 일본정부에게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이 아직은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승리할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와신상담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전쟁 준비에 몰입했습니다. 이를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청일전쟁 후에 조선 정국은 친일개화파의 집권이 확실해 보였으나, 불과 6일만에 일본이 러시아에게 굴복하는 것을 본 민비는 재빨리 친러 내각을 구성하고 개화파와 대립하게 됩니다. 민비는 개화파를 제거하려고 하고 개화파는 대원군과 결탁하여 민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결국 민비는 개화파, 대원군, 일본의 음모로 살해됩니다. 민비 시해 이후에는 개화파가 다시 집권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에 민비가 죽고 그해 12월에 서재필이 귀국합니다. 개화파의 복권으로 갑신정변 때 반역죄를 지은 개화파가 조선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896. 6. 9): 38선의 기원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일본은 러시아라는 복병을 만나 한반도 경영에 대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러시아와 전쟁을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38도 선에서 조선을 남북으로 나누어, 북은 러시아가 남은 일본이 경영할 것을 제안하나 러시아가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38도선 분할이 역사상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러시아는 39도 선 분할을 일본에게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나라가 모두 조선에 군을 주둔시키고 같이 조선을 보호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공관의 푸대접과 빗발치는 상소 그리고 독립신문의 환궁 요청에 못 이겨 1897년 2월 20일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제든지 외국공관으로 피신할 수 있는 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면에 계속〉

恨歎

김택수 (63 네바다)

골프칠랴 하두 바빠서
사진 찍을랴 하두 바빠서
요리할랴 너무 바빠서
마누라 보살필랴 너무 바빠서
바느질할랴 하두 바빠서
음악 듣을랴 하두 바빠서
수다떨랴 너무 바빠서
쇼핑할랴 너무 바빠서
난 늙을 짬이 통 없네
어쩌지 쩌쩌 .....

성에꽃

徐慈性 (68)

누가 고운 성에를 유리창 위에 그렸나
찬 바람일까, 해님일까
얼음 꽃이 활짝 피었다

손가락으로 살며시 성에를 만지면
그림은 흐려지고
손 마디에 겨울이 시려 온다

별들 반짝이던
위쪽 하늘은 환히 열어놓고
달님이 입김으로
밤 새 그렸을까

얇은 유리창 위 은빛 숲 속에서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하며
동네 아이들 낄낄거리고

하얀 머리 할머니는
손주들 난로 옆에 둘러앉히고
군 고구마 익히면서
옛날 이야기 한창이다

새해에는 …

"Ob la di, Ob la da. la la la"

정 재 옥(수필가)

"오블라디 오블라다"는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사는 원주민 요르바족의 언어라 한다.

"인생은 흘러간다 즐겁게 즐겁게"라는 의미를 가진 이말은 비틀즈의 노래로 소개되면서 한때 온 세계어가 될 만큼 유행했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작곡을 하든 예술가들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부터 영감을 얻었을 때 거침없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낼 수 있는 것 같다. 비틀즈 멤버인 폴 메카트니도 나이지리아에서 드럼의 일종인 콩가 연주자를 만나게 되면서 신곡의 탄생을 예감한다.

폴은 콩가를 두드리면서 입버릇처럼 흥얼거리던 원주민의 신나는 리듬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듣게 되고 문득 그 자리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멜로디를 연상하게 된다. 그는 거칠것 없이 곡을 썼고 끝 소절마다 후렴으로 이 흥겨운 언어를 붙여 넣어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노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곡은 "더 비틀즈 앨범"에 그들의 수많은 힛트곡과 함께 수록이 되고 70년 대 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 만큼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윌레 소잉카도 아프리카의 요루바족 출신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자국의 살아져가는 언어와 풍습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탄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노벨문학상은 물론 작품도 좋아야 하지만 이렇게 인류에게 공헌한 업적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한다. 한글을 창제하신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노벨상을 타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2012년 경주에서 열렸던 국제펜 세계 대회 때 그를 직접 만난 영광을 가져 그의 언어인 "오블라디 오블라다"란 요루바말에 더 친근감이 느껴진다.

"Ob la di, Ob la da…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데스몬드는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몰리를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돈을 벌어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네…오블라디 오블라다… 인생은 흘러간다네…. 라라라 즐겁게 즐겁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아쉬운 인생을 더 잘 보내기 위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스몬드처럼 좋은 배필을 만나 아들딸 낳고 잘 사는 것이 로망이고 행복의 표본으로 되어있다. 그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마다 사는 방식도 다양하고 사랑마저도 여러가지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음을 본다. 현실이 아닌 허상 속에서 평생을 헤매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진실한 사랑을 만나지 못한 때문이고 또 자신이 그 진실한 사랑을 운명적으로 비껴감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마지막 보류는 말뿐인 사랑이 아닌 자신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자기 사랑을 찾는 데 있는것 같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아마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은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수많은 책 수많은 영화들도 사랑의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 본 기억에 남는 특이한 사랑 영화가 하나 떠오른다. "그레이의 50개 그림자, fifty shades of Grey"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한때 하버드 대학생들의 독서 목록 1위를 차지하면서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져 대중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았다 그레고리팩 주연의 "앵무새 죽이기"를 능가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매스컴은 연일 떠들어댔고 그 열기를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흥행 홈런을 쳤다.

정말 영화 제목처럼 회색빛 그림자가 세상을 덮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 나도 물론 그 열기 속에 휩쓸려 놓치지 않고 영화를 봤다. 그런데 왜…? 이 영화가 이토록 공전의 히트를 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영화의 장면 장면이 주는 낯설은 사랑의 방식 때문에 나는 많이 불편했었다.

영화의 스토리는 간단했다. 그냥 청춘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질적인 낯설음에 문제가 있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억만장자 크리스티앙 그레이는 모교 대학신문에 성공한 기업가로 뽑혀 인터뷰 요청을 받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신 나온 학보사 기자인 아름다운 후배 아나스테샤 스틸을 만나게 된다. 두 젊은 남녀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영화는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그들의 관계는 남자의 요구대로 계약을 맺으면서 의미심장한 사랑놀이에 도전장을 던진다. 그러나 사랑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남자의 쎄디스틱한 성의 방식에 여주인공 아나스테샤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그를 떠나고 만다. 그리고 제1편은 끝이 난다. 물론 영화는 호화롭게 만들어졌고 미남미녀 배우들 만으로도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요건은 충분했다. 다만 남자의 충격적인 성의 방식은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당황함을 던져줬던 그런 영화였다. 하지만 이런 생소한 것들이 가미되어 있어서 이 영화가 엄청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흥행에 성공한 이 영화는 그 여파를 몰아 시리즈로 2편이 만들어졌다.

"더 짙어진 50개의 그림자, fifty shades darker," 제목부터가 더 강렬했다. 2편도 크게 흥행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요즘 3편이 나와 또 상영 중에 있다.

"사라진 50개의 그림자, fifty shades freed" 말하자면 그림자 연속물인 셈이다. 1편에서의 그 어둡고 칙칙한 회색빛 그림자가 2편에선 아예 더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고 그리고 3편에선 모든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제목이 던져주는 뉘앙스가 흥미롭다. 2편을 놓친 걸 후회했지만 3편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영화에서 Grey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이 주는 정체불명의 베일에 싸여있는 영화 속의 인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남자 주인공 크리스티앙 자신의 라스트 네임이기도 하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반면에 첫 영화가 던져준 충격적인 장면이 떠올라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안심해도 좋았다. 하얀 웨딩 가운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멋진 신랑의 결혼식으로 관객의 부러움 속에서 세 번째의 영화는 막을 올리고 있다.

이제 그레이의 모든 그림자는 다 사라지고 태양이 눈부신 찬란한 날에 그들은 신부와 신랑으로 나란히 새 인생을 출발하고 있다.

굿모닝 와이프!

굿모닝 허즈번드!

고아원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어두운 과거가 있는 남자 주인공 그레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태까지 그가 행했던 낯설고 이질적인 행동은 비로서 관객의 이해를 돕게 된다. 억만장자로 성공을 하고도 채워지지 않던 알 수 없는 허탈감에 싸여 마구 뿜어냈던 그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말끔히 거치게 된다.

그가 휘두르던 가죽 회초리도 가죽 장갑도 여자의 손발에 채워졌던 쇠사슬도 모두 그레이의 사랑 결핍증에서 온 과거의 실체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비참해서일까 아이를 가지기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그였지만 어느새 피크닉 담요를 챙기고 아이의 손을 잡고 둘째를 임신한 아내의 뒤를 따라 걷는 그의 뒷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인다.

데스몬드와 몰리처럼 결국 크리스티앙과 아나스타사도 먼 길을 돌아왔지만 진실한 사랑을 찾음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Ob la di , Ob la da.! la la la…

인생은 흘러간다네,… 흘러간다네…! 즐겁게…! 즐겁게…!

당신도 뭔가 이 우울하고 삭막한 겨울 숲을 지나 찬란히 밝아오는 새해에 즐거운 일을 원한다면 Ob la di, Ob la da를 외쳐보라! 외쳐 보…라!

〈전면에서 계속〉 10월 20일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500년 동안 사대국가로 받들었던 중국은 이제 필요없는 존재였습니다. 대한의 한은 진한, 마한, 변한의 한이라고 합니다.

의화단사건(1899.11.2-1901.9.7)

19세기 말기의 청나라는 그야말로 민신창이였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에게, 홍콩은 영국에게, 산동반도는 독일에게 넘어갔습니다. 조공국이었던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고, 조선을 열강의 먹잇감으로 내주어야 했습니다. 여러 항구의 조차권을 유럽 열강에게 내주었습니다.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물어야 할 배상금 또한 막대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재해 또한 극심했습니다. 전비와 배상금 때문에 정부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 또한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젊은이들이 봉기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첨단무기를 가진 서양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전통무술의 정신력으로 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교의 전통을 살리고 침략자 서양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리스도교를 배척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서태후는 외세를 몰아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폭도들을 도와서 서양 세력에 도전합니다. 결국 일본을 포함한 8개국 연합군에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쑨원의 등장과 신해혁명

1894년 손문은 중흥회를 조직하고 혁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북방민족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망해가자 남쪽의 한족에 의한 나라를 건설하고, 외침으로 부터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95년에 광저우 무장봉기가 사전 발각되어 실패했지만, 이듬해에 삼민주의를 발표하고 수차에 걸친 무장봉기를 시도하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 10월 10일 우창 봉기가 성공하여 1912년 1월 1일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중화민국을 선포했습니다.

서재필과 손문은 둘 다 의사이고 조국이 어려운 때에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재필은 1964년, 손문은 1866년에 출생했습니다. 손문이 삼민주의를 고안할 무렵,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했습니다. 서재필은 조선의 위정척사파, 고종, 그리고 외국공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1898년 5월 14일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일전쟁(1904.2.8-1905.9.5)

청이 일본에게 굴복하여 조선에서 손을 떼자, 조선은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쟁 준비가 완료되어 러시아를 이길 자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902년 1월 30일 일본과 영국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영국은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일본은 삼국간섭이후 국가예산의 40%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국민들은 높은 세율에 불평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겨서 갚으라고 하며 정부에 협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정보수집을 철저히 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제정러시아는 학정을 했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빈번했습니다. 일본은 이 시위주동 세력을 원조해 주었습니다. 일본은 속전속결을 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국민과 정부가 일치단결되었던 반면에 러시아는 국민이 전쟁을 원치 않아서 분열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학정으로 시위가 자주 일어났는데, 니콜라스 황제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농담 골목

한국 사회는 권력(權力)이 움직이며 이것 없이 살면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것 같다. 3대 권력 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결석)이 안가(安家) 같은 최고급 요리집에서 밤새도록 즐기며 대담을 했다. 그 거액의 비용을 누가 지불했을까? 그 정답을 맞히는 분은 편집부에 연락하면 내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세엽)

2020, 경자년 '쥐띠'를 맞아 쥐에 얽힌 농담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쥐들을 잡기 위해 동네 구석구석마다 쥐약을 놓았더니 쥐들이 많이 없어졌다. 한편 쥐들은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인간에게 시위를 하기로 하고 구호를 적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2020년은 쥐의 해다! 우리에게 쥐약 대신 피임약을 달라!' (이덕숭)

쥐약 장수가 집집을 방문하며 쥐약을 팔고 있다. "아주머니, 이 약은 쥐를 잡는데 백발백중의 특효약입니다 싸게 드릴 테니 사시지요."

"우리 집엔 쥐가 없으니 그건 필요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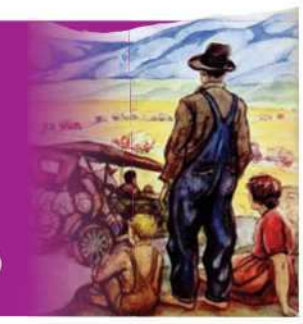
그러자 쥐약 장수는 바짝 다가서며 "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쥐 두 마리를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덕숭)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

- John Steinbeck -

문 성 길(70, 버지니아)



이 소설이 특별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아마도 요즈음 경제사정이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세계 경제 대공황 때와 비교된다고들 어디를 가나 야단들 때문인 것 같다. 실제 1920-30년대 사람이 아니니 그 당시 참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다행히 그 당시 사회 배경을 중심으로 쓰인 소설, "분노의 포도"(작가- 존 스타인벡)가 있어 당시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금의 상항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옛날 영화인 분노의 포도를 보았기에 내친김에 전에 보았던 소설을 또다시 읽으며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재난이 휘몰아쳐도 있는 자들은 끄떡없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만 더욱 비참해지는 것 같다. 아니 그런 와중에 약삭빠른 일부는 더욱 부를 축적하는가 보다.

이 소설은 소설의 두 가지 역할(문학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중 사회적 기능에 더욱 중점을 둔 것 같다.

사회가 힘들어지면 부당한 권력이나 부조리에 민감한 지식인, 예술가들은 그에 항거하면서 좌경화하는 사실들을 우린 역사에서 보아왔다. 그 당시 상황이 존 스타인벡의 이 소설이 나올 수 있게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은 기득 극우 보수층의 반발로 그 당시 공공 도서관에 비치될 수도 없었던 금서 중 하나였었다고 한다. 후에 노벨문학상이 그에게 주어지지만-.

그럼 저와 함께 독서여행을 떠나 보실까요?

소설은 오클라호마 주 어느 시골 영세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된 이들의 근심 어린 정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남자들이 기죽는 것을 여인들은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남자들이 아직 기죽지 않았음을 보고 여인들은 안도한다.

대대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엿이 자기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롭지는 못해도 평화롭게 살아오다가 심한 흉년을 만나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상환을 못해 결국은 땅은 은행 소유로 되며 이제부터는 은행 소유의 땅을 부쳐 먹고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소위, 소작농 신세로 전락하나 더 큰 흉년으로 그것도 감당 못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수십만 명)이 있다는 것과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불가항력이라는 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은행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능력 없는 소작농들 보다야 극소수의 인부만 고용 그 당시 새로 발명된 각종 신형농기구(트랙터)을 사용하면 이윤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이게 간단히 주판알 굴리기로만 될 문제인가 말이다.

여기서 사회의 모순이 발견되며 계층 간 분열, 이념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오늘날 한국 조국에서도 노.사 분쟁이라는 명목하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근저의 원리는 대동소이한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가진 자, 힘 있는 편에서 조금만, 그것도 그들의 수준으로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약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선물이 될 텐데-.

사람이 조그만 땅뙈기를 좀 가지면 그 땅뙈기는 자기 것이요, 그람의 일부가 되며,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지. 땅이 자기 소유가 되어 땅 위를 걸어 다니며 땅을 만지고, 농사가 안 되면 슬퍼하고, 비가 오면 좋아하는 경우에 그 땅은 바로 자기란 말이야, 땅임자니까 사람이 재산보다는 잘난 셈이지, 일이 잘 안돼도 땅임자니까 역시 잘났단 말이야, 정말 그래.

그리고 소작인은 좀 더 생각해본다.

그런데 땅은 구경도 못하고 만져볼 시간도 없고 그 땅 위를 걸어 다닐 시간도 없는 작자가 땅임자가 되면 가만 있자, 그럴 때엔 땅이 바로 주인이란 말이다. 그런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생각도 못한단 말이야. 땅이 바로 그 작자이며, 그 인간보다도 강하단 말이야, 그런 인간은 졸장부야,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커다랄 뿐이야-. 그리고 자신은 재산의 머슴이 된 셈이지. 역시 그래.

그러나 요즈음 은행들의 작태를 보라. 부실경영의 책임은커녕 천문학적 숫자로도 모자랄 지경의 그 어마어마한 빚 덤터기를 일반 대중들에게 덮어씌우는 형국이 아닌가 말이다. 국민의 빚보증으로 나간 구제금융 명목의 돈으로 보너스를 챙기기까지 하는 그들이 아닌가 말이다.

이야기는 다시 소설로 돌아가야겠다.

이들은 애걸도, 항거도 해보려 하나 유령과도 같은 실체(은행-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재산가들)을 상대할 수 없어 결국은 자기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하수인에 불과한 대리인에 겨우 화풀이도 아닌 화풀이로 끝내고 그 고장을 분노와 눈물을 갖고 떠난다.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어렵게 장만했던 가재도구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좀 더 살기가 괜찮다는 서부- 따뜻한 고장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처절한 그들의 끝없는 행렬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조오드 일가의 기둥인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다. 원문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뚱뚱한 얼굴은 부드럽지는 않다. 억제력이 있어 보이는 정다운 얼굴이었다. 개암나무 열매 색 눈은 비극이라는 비극은 거의 다 겪었고, 고통과 고뇌를 계단처럼 하나하나 끝까지 올라가 고도의 평온 상태와 초인적인 이해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족의 요새이며, 뺏으려야 뺏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인 자신의 지위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환영하고 있는 것만 같이 보였다.

그녀가 고통과 공포를 인정하지 않는 한 톰 영감(그녀의 남편)도 아이들도 고통과 공포를 알 리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 자신 속에서 그들을 계속 부정해왔다.

그리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모두가 그녀에게도 그 기쁨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그녀의 눈치를 보는 까닭에 그녀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도 웃으며 좋아하기로 버릇을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쁨보다도 더 좋은 것은 평온함이다. 평온하고 태연하면 의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의 그녀의 위대하고도 겸손한 지위의 탓으로 그녀는 위엄과 맑고도 냉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고, 집안을 위로해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은 확실하고, 평온하고, 또한 태연한 것으로 성장하였고, 조정자로서의 입장에서 그녀는 그 판단에 있어 여신과 다를 것이 없이, 초연하고 또한 실수가 없었다. "자기가 동요하면 온 집안이 동요하고, 만일에라도 자기가 정말 자신을 잃거나 낙심하면 집안이 허물어지고, 집안을 꾸려나가려는 의지가 사라져 갈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현모양처를 묘사하는 이처럼 좋은 문구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덕의 중요함을 엿보게 된다. 여성들에게 도덕 시간에 이러한 교육을 권유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욕을 여성들로부터 다발로 받을 것 같다.

그러나 여성 역할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한 집안의 결속과 번창은 물론 결국은 나라의 번영, 흥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도착 천막촌에 임시로 자리 잡고 남자들이 과일을 따서 번 돈(형편없는 저임금이나 그마저 없다면 생계는커녕 생존 자체까지도 위험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기에 하는 수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서러움)으로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자기들보다도 더욱 어려운 처지의 어린애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여인이다. 고향 오클라호마를 떠나올 때 종교, 다시 말해 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회의에 빠져 목회를 그만두고 방랑하면서도 그 고장을 지키려 했던 전직 목사님 케이시 아저씨를 모시고 온 것도 그녀와 의협심으로 가득 찬 둘째 아들(집안의 양대 기둥 중 또 다른 한 명임)이었다. 그녀는 또한 이런 여인이었다. 오클라호마를 떠나오기 며칠 전 4년 만에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토미와 전직 목사 케이시를 집에 데려오면서 아내를 놀려주려 남편 톰이, "여보! 마누라, 나그네 두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는 데."라고 말한다.

둘째 아들 토미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다. 한시도 잊히지 않던, 조용한, 침착한, 느린, 다정하고, 겸손한 음성이다. "그 사람들을 들어오래구려, 잔뜩 만들었으니까, 손을 씻고 와야 한다고 그래요. 빵은 다 되었고, 지금 부스러기 고기를 볶는 중이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녀에게는 가족의 결속이 최우선이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도중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해 식구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지려 할 때, 그녀의 일갈, "돈은 벌어 뭘 한다는 거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가족이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늑대들이 득실거리는데 송아지 떼가 한데 꼭 뭉치는 것과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모두 튼튼한 몸으로 한데 모여 여기 있는 동안은 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여기서 몇 년 전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등장했었던 한 처녀 가장의 일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부모가 일시에 무슨 사고로 죽자 졸지에 동생 넷인가 다섯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당시 대학 일이 학년 학생의 감동 스토리.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친척 혹은 자선기관을 통해 일단은 뿔뿔이 형제. 자매들이 헤어져 위탁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어린 처녀 대학생 가장은 이를 거부하고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주경야독을 하며 동생들과 함께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못하는 시련을 극복해 냈다는 이야기다.

대단한 여인들의 공통점을 엿볼 수가 있다. 이야기를 소설 속으로 다시 되돌리자.

이들 두 사람(어머니와 둘째 아들 토미)이 있기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으며 케이시 전목사님과 토미가 있기에 끊임없는 사회의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백만(萬) 에이커의 땅을 가진 한사람 때문에 10,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 사회는 무언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그들의 주장을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소설 중 일부 내용을 좀 더 옮겨볼까 한다. 전직 목사님 케이시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자기가 부자라는 기분을 맛보기 위해 백만 에이커가 필요했다면, 그건 마음속으로 자기가 무섭게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마음속이 가난하다면 제아무리 땅이 백만 에이커가 있다 손치더라도 부자가 됐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그 사나이는 무엇을 해도 부자가 됐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 테니까 낙심하고 있을 거란 말이요-. 할아버지가 캘리포니아로 오는 도중 트럭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준비에 필요한 천막을 빌려준 똑같은 이주민인 윌슨댁 아주머니 같은 "풍족한 기분"이 나지 않을 거란 말이요

"똥개처럼 분주하게 재물을 긁어모으는 인간치고 낙심 안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소."

인간들이 특히 가진 자들이 정녕 현명하다면 자신들의 부를 그대로 잘 보전하기 위해서도 나눔의 정신으로 약한 자, 못 가진 자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유한다는 본질이 재산 있는 자들을 영원히, 〈나〉속에 가둬두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에서 분리시킴으로 해 수없이 많은 혁명의 회오리바람이 역사적으로 지구 도처에서 있어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여기 사소하나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인 것 같아 그대로 옮겨본다.

"남을 돕는 건 그렇게 해달라고 안했다 해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불법운운"하며 공권력을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제압하려는 현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탄압을 하면, 탄압받은 자의 힘을 북돋아주고, 그들의 단결을 한층 강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급기야는 폭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재산이 극소수에 집중되면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에 나눔의 정신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지금 오바마 대통령 영도 하에 건강보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안을 강력히 추진 중이고 집을 압류당할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책들이 한창 시행 중이라 긴 암흑의 터널 반대편이지만 불빛을 보는 것 같아 천만 다행이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있는 자들의 너그러움이 절대 전제조건인데 우매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다시 소설로 되돌아가 보도록 해보자.

둘째 아들 토미에 대해 좀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다.

오클라호마에 살 때 본의 아닌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젊은이들의 파티 때 술에 취한 동네 녀석의 칼부림을 맞게 되고 이에 화가 난 톰은 반격을 가해 결국 〈다음면에 계속〉

세 사람을 위한 집

정유석 (64, 북가주)

20세기에 사용되던 정신과 교과서에는 'menage a trois'라고 불리는 성 도착증이 기술되어 있었다. 'menage'란 프랑스어로 집이고 'trois'는 셋을 뜻함으로 결국 '세 사람을 위한 집'이란 말이다.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면 한 쌍의 남녀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끼어들어 셋이 벌이는 '삼각 성교'를 의미한다. 예전 교과서를 보면 이런 형식의 성교는 이성애를 가장한 강한 동성애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나체나 옷 벗는 장면 또는 성교 장면을 은밀하게 관찰하면서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도착증이고 노출증은 자신의 성기나 성 행위를 타인에게 노출시키면서 흥분하는 도착증인데 삼각 성교는 동성애적인 요소 외에 관음증과 노출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형태의 성 도착증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다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가히 성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60년대가 지나면서 이 병명은 슬그머니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요즈음에도 sharing, swinging, three-some, mate swapping 같은 단어가 사용되듯이 집단 성행위가 반드시 성 도착증이 아닌 다양한 성행위들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마당에 삼각 성교를 성 도착증이나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간주하기에는 시대적으로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잦은 이혼 때문에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 영국의 헨리 8세는 성공회를 만들었는데 생전에 무려 6번 결혼을 했다. 마지막 부인이 캐서린 왕비인데 그녀는 왕이 사망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주위의 비난을 개의치 않고 서둘러 시모어 경과 결혼했다. 그녀의 네 번째 결혼으로 영국 왕실 여성의 기록을 세웠다. 헨리 8세와 전처 사이에 이복 딸이 있었는데 왕비는 새 신랑과 사이의 관계에서 이 딸을 불러들였다. 이 이복 딸이 훗날 처녀왕으로 알려진 엘리자베스 1가 되었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하고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프레드릭 엥겔스는 매리 번스라는 여인과 사귈 때 그녀의 여동생인 리지와도 관계를 지속했다. 아마도 공산주의는 섹스도 공유한다는 말이 여기서 시작되었나보다.

삼각 성교는 한 남자와 두 여자 사이만이 아니라 한 여자와 두 남자 사이의 관계도 포함한다.

프로이드의 제자로 첫 여성 정신분석자가 된 살로메란 여인은 프레드릭 니체 말고도 파울 레라는 철학자와 동시에 한 집에서 살았다.

삼각 성교에 관한 기록은 동양에도 있다.

지금부터 약 1천 4백 년 전인 7세기경 당나라 초 고구려를 침범했던 태종에게는 비가 하나 있었다. 태종이 죽고 그의 아들인 고종이 등극하면서 그녀는 아들뻘인 고종의 정부인이 되어 황후에 책봉되었다. 고종이 죽자 그녀는 스스로 여황제가 되었다. 중국 역사상 단 하나의 여황제로 측전무후라고 부르는데 그녀의 나이 68세에 등극하였다.

그녀가 만년에, 그것도 80에 가까운 나이에 장역지, 장창수라는 두 형제를 침실에 끌어들여 이중 성교를 즐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삼각 성교였던 것 같다. 또 '행화천' 이란 중국 소설에는 봉열생이란 이름은 주인공이 12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고 한다. 그 소설에는 12명의 여자를 큰 이불 아래 한 개의 긴 베게 위에 뉘어두고 한 사람씩 차례로 정사를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선조 때 영의정까지 오른 기자헌(1562-1624)대감은 무척 청빈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소실을 따로 둘 방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부인과 소실을 한 방에 두고 한 이불 밑에서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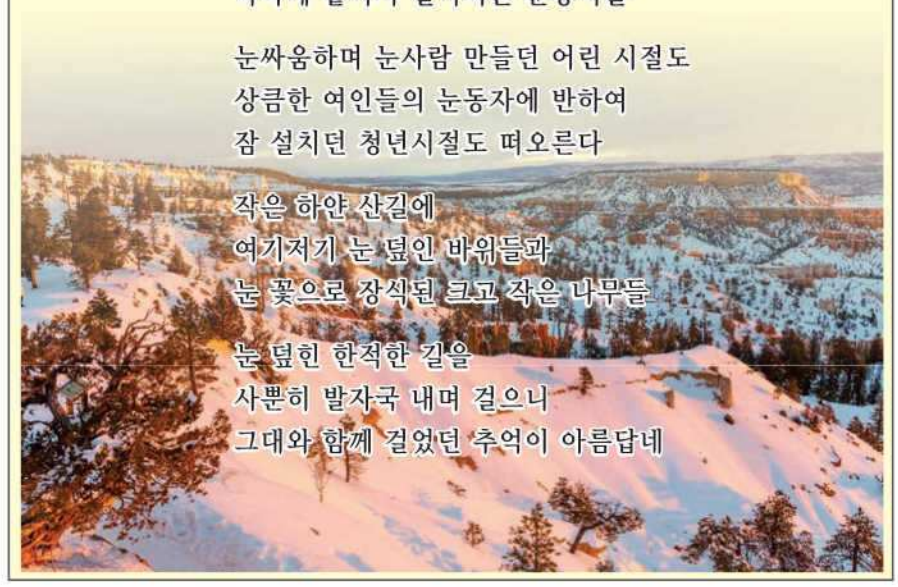
이를 우연히 알게 된 백사 이항복, 조선조에서 풍자와 해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가 기대감 댁 정경을 그대로 두고 지나칠 리 없으렷다.

그래서 풍자시 한 수를 지었는데 이를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원앙침 베게 위에 머리 셋이 나란히
비단 이불 속에는 궁둥이가 여섯 개,
입을 열어 웃으면 못 품(品)자 같고
옆으로 누우면 내 천(川)자 같도다.
겨우 동쪽에서 일을 시작하는데
서쪽에서 주먹이 날아드는구나.

겨울 풍경

나두섭 (73, 남가주)



인생의 굽이진 산길에 눈은 쌓여 있고
나뭇가지의 눈은 바람에 휘날리니
바닥에 흩어져 떨어지는 눈송이들

눈싸움하며 눈사람 만들던 어린 시절도
상큼한 여인들의 눈동자에 반하여
잠 설치던 청년시절도 떠오른다

작은 하얀 산길에
여기저기 눈 덮인 바위들과
눈 꽃으로 장식된 크고 작은 나무들

눈 덮힌 한적한 길을
사뿐히 발자국 내며 걸으니
그대와 함께 걸었던 추억이 아름답네

〈전면에서 계속〉 상대방은 죽고 7년의 형기 중 4년만 복역하고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전직 목사인 케이시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둘은 이주하는 조오드 일가의 기둥 역할을 한다. 조오드가의 어머니와 케이시는 언제나 토미를 보호하려고 한다.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 무슨 일에 재수없게 걸려들면 틀림없이 감옥에 다시 보내질 것이기 때문에--.

케이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일 자네가 이 일에 걸려든다면 자네네 가족 전부가, 집안 식구 전부가 성가시게 된단 말이야, 자네 하나라면 상관없어. 하지만 자네 어머니, 아버지, 그 양반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잘못하면 톰은 맥알리스터 감옥으로 돌려보내질지 몰라."하고 말했다. 이렇게 늘 토미를 걱정해주는 그들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수많은 불의를 보게 되고 (농장주들의 횡포-저임금에 갖은 학대, 위협 등) 이주 농민들을 조직화하여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도중 케이시 목사는 피살된다. 옆에서 지켜보던 토미가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케이시 목사를 죽인 녀석의 숨통을 끊어 논는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근처에 숨어살던 아들의 안위를 위해 멀리 떠나가 있으라고 권유한다. 처절하고 애틋한 부모. 자식의 이별 장면을 보도록 하자.

"쉿! 어머니가 긴장해서 말했다." 좀 들어봐라!"

"바람이에요, 어머니, 그저 바람이에요." 세찬 바람이 개울로 휘몰아치고, 나무들이 그 바람에 살랑살랑 울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싹 다가갔다. "또 한번 만져보자, 토미야. 캄캄해서 도무지 장님이 된 것 같구나. 난 기억해두고 싶다. 비록 그게 손끝으로의 기억일망정." 넌 여길 떠나야 한다.

이때 아들 토미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

보세요, 어머니. 내가 밤낮 혼자 숨어 살면서 늘 누구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케이시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그 양반이 하던 말이 생각나는 군요.

"언젠가 자기 영혼을 찾으려고 광야에 나간 적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 자기의 영혼이란 건 없더래요. 자기는 다만 굉장히 큰 영혼의 극히 작은 한 가닥만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더래요. 광야에 나간 게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더래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극히 작은 한 가닥의 영혼은 남의 영혼하고 합쳐져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상하죠, 난 그만이 아주 또렷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는 별로 귀담아듣지 않았는데,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걸 이젠 잘 알았어요."

모자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전도서"의 한 구절이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임신한 몸으로 친정식구 이주 행렬에 끼어 모진 고생 끝에 사산(死產)을 하고 절망 중일 때 심한 폭풍을 피해 들어간 헛간 같은 곳에서 어느 부자(父子를 발견하고, 이때 어린 소년으로부터 아버지가 오랫동안의 굶주림으로 죽음이 경각에 달렸음을 듣고 자신도 허약해져 거의 같은 지경이나 자신의 젖을 그에게 먹인다.

그 성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하자.

"우리 아버진 정말 죽어요, 정말 굶어죽어요!"

"조용해." 이러고서 그녀는 이 죽어가는 사나이를 어쩔 수없이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아버지와 백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머니와 샤론은 서로 상대방의 눈 속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통하는 바가 있는 모양이다. 딸은 숨결을 가쁘게 헐떡거렸다.

그러고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천천히 구석으로 걸어가 사나이의 그 야윈 얼굴과 겁에 질려 말똥거리는 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몸을 비틀듯 더 가까이 가 이불 한쪽을 헤치고 젖을 꺼냈다. 그리고 사나이의 얼굴을 끌어당겼다. "자, 어서! 하며 손을 사나이의 머리 뒤로 놓고서 얼굴을 받쳐주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사나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쳐들어 헛간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꼭 입을 다물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로 소설의 대미를 장식한다.

수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 소설을 읽고 나대로 하나의 의문점을 끌어내고자 한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나와 너라고 말할 때는 어딘가 뭔가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느낌이고 너에 대한 나의 배타성 그리고 은연중 너에 대한 나의 우월 내지 우수성(유아독존 唯我獨尊)을 부지불식간에 내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라고 할 때는 또 어떤가?

뭔가 "유사성", "공통점"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 "너"와 "나"라고 할 때보다 얼핏 보기엔 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도 아니할 뿐 어느 경우엔 이보다도 훨씬 나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우리"를 협의(狹意)와 광의(廣意)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다.

다 그런 것은 아니나 협의의 경우 잘못하면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우리 직장 등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의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지경인 경우 "우리"라는 단어를 더 이상 써서는 안되는 "이기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광의로서의 "우리"는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아우르는, 소위 "종교적, 진정한 의미의 우리"라고 부르고 싶다.

인간이기에 "나"를 중심한 이기적 생각에서 "너"를 인정하는 아량으로, 너와 함께 "우리"공동체 의식, 그것도 종교적 의미의 "광의의 우리"로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낱 꿈에 불과할까?

"남을 돕는 건 그렇게 해달라고 안했다고 해서 아니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하물며 절망에 처한 약자가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를 못할망정 박해해서야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 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80평생(기원전 347년 졸) 마지막 저서 "법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보다도 더 무서운 내분이나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진 나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아무리 많아도 "4배"이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시민들 서로가 화목하며 또한 지성을 지닌 나라"를 이상적 국가상으로 정의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보편적 진리에는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글: 청답(淸畓) 문성길

Appomattox, 미국 판문점

이 희 백(61, 시애틀)

1865년 3월4일

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날 그의 두 번째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영문 그대로 옮긴다.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1865년 3월 28일

General Grant의 Floating Commanding Post인 Union Steamer, River Queen에서 링컨 대통령은 Lt. General Ulysses S. Grant, Maj. General William Tecumseh Sherman, 그리고 Rear Admiral David D. Porter와 만난 자리에서 "반군이 무기를 놓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미국 시민으로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861년에 링컨을 처음으로 만나본 Sherman은 그를 연약하고 당파적이고 대통령 노릇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를 만나본 후로는 "그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 중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와 인간성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이었다."고 평가가 달라졌다.

미주리 주 하원의원을 지낸 James Symington은 말하기를 "링컨은 양쪽을 다 보는 통찰력을 가졌기에 그는 남북전쟁(이곳에서는 Civil War라고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남북전쟁이라고 나는 부르겠다)중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지내야 함을 항상 명심했든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1865년 4월 9일

이틀 전에 General Grant로부터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하는 편지를 받은 General Lee는 이를 거부하고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길을 찾았으나 그 길이 없음이 분명해지자 Grant에게 항복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의논하자고 편지를 보냈다. 이때 Grant는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두통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부하에게 크게 읽으라고 했다. 그는 즉시 Lee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읽어본 Lee는 예상치 못한 회답에 놀랐다. 회답 장소를 패한 자기에게 정하라는 것이다. 그는 즉시 적당한 회담 장소를 물색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했다. 그때 그가 포위당한 장소는 당시 Confederate 수도였든 버지니아 주 Richmond의 남쪽에 위치한 Petersburg와 그 서쪽에 위치한 Lynchburg 사이에 있는 Appomattox Court House 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스무 개 정도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처음에 고려한 집은 너무 허술해 다시 물색한 결과 Wilmer McLean이란 사람의 집(사진 참조)이 선택되었다.

McLean이란 사람은 원래 남북전쟁 첫 번째 전투지였든 Manassas 근처에 살든 사람인데 전쟁 한복판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살자고 이곳으로 이사해 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Manassas 집은 남북전쟁의 첫 신호탄이 된 Fort Sumter 포격시 그곳 사령관이었든 Brigadier General P.G.T. Beauregard가 Manassas 전투(Union 측에선 First Bull Run이라 부른다) 때 본부로 쓴 집이었다. 따라서 Wilmer McLean의 두 집은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끝마치는 기구한 운명의 집이 됐고 지금 Appomattox에 있는 집은 Appomattox Court House National Historical Park가 생기면서 2008년에 재건한 집(사진 참조)이다.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집이다.

General Lee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쑥한 새 군복을 입었고 조각 무늬가 새겨진 칼을 옆에 차고 있었다. 그는 포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차림을 적에게 허술하게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장한 것이다. 30분 후에 나타난 General Grant의 차림은 이와 대조적으로 작전지역에서 입든 옷 그대로 달려와서 구겨진 옷에 진흙이 얼룩져 있었다. 아무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그는 어깨에 달린 퇴색된 계급장만이 간신히 그가 장군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을 사이가 없어 무례하게 됐노라고 사과했다. 한쪽은 패한 장군, 한쪽은 승전한 장군임에도 표정은 똑같이 슬픔에 잠겨 있었다. Grant가 먼저 자기가 멕시코 전쟁 때 그를 본 기억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Lee는 "그랬든가?" 하면서 자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노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적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Lee가 먼저 사무적인 논제를 끄집어 냈다. 항복조건으로 무엇을 자기에게 요구하는가 하고 물었다. 첫째 장병 전원의 명단을 두벌 작성, 하나는 자기편에, 다른 하나는 상대편이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다시는 연방정부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선서를 하라고 했다. 셋째 모든 무기와 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옮기고 우리가 임명한 장교에게 바치라고 했다. 그러나 장교의 개인용 무기와 말, 그리고 개인 휴대물은 이에 포함치 않는다고 했다. 이를 이행한 후면 언제 귀가해도 되고 이 요구 조건을 지키고 지나가는 지방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아무도 연방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에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General Lee가 예상했든 조건보다 훨씬 관대한 것이었다. 아무도 포로로 가두거나 반란죄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 이제는 우리는 어차피 소용없고 당신들 사병들은 돌아가면 다가오는 봄 경작에 필요할 테니 말도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Grant는 Lee에게 지금 휘하에 몇 명이 있으며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Lee는 지금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노라고 했다. Grant가 2만 5천 명분 ration을 보내겠다고 하자 Lee는 그것은 자기 사병들을 매우 즐겁게 해줄 것이며 앞으로 남북이 화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회담 내용을 기록하고 내용을 피차 확인하고 나니 오후 네시가 됐다.

항복문서에 서명을 마친 Lee가 회담 장소에서 나와 말에 올라 자기 진지로 향하자 둘러쌌든 북부군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Grant는 이를 즉각 중지시키고 "그들은 이제 우리들의 포로다. 그들의 패배를 우리가 즐길 때가 아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되였다."고 말했다.

그 다음날 정식 조인식을 갖고 사열식을 갖게 되었다. 북부 Joshua L. Chamberlain 장군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Gettysburg, Petersburg 전투에서 여섯 군데나 다쳐 그가 살아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장군이다. 남부군 John B. Gordon 장군이 그의 앞을 지나가고 그의 뒤를 따라 Northern Virginia Army의 유명한 Stonewall Brigade가 지나가자 Chamberlain은 패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 경례를 하라고 자기 군병에게 명령했다. 이에 답례해 Gordon은 말을 돌려 Chamberlain을 향해 그의 칼끝을 그의 발끝에 갖다 대면서 답례를 했다. 후에 General Gordon Chamberlain을 최고의 기사도를 갖춘 장군이라고 극찬했다.

Lee는 항복 당시 Grant가 베푼 관용을 평생 잊지 않았고 자기 앞에서 Grant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엔 90일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했든 남북전쟁은 4년이 걸리고 62만 명의 인명 피해를 낸 후 Appomattox에서 "사실상" 끝났다. 이 숫자는 미국이 치른 독립전쟁, 1812년의 영국과의 전쟁, 멕시코 전쟁, 스페인 전쟁,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숫자다. 그 당시 미국 인구가 3천1백만 이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6백20만의 인명이 희생된 참혹한 전쟁이었다. (최근에는 75만 명으로 수정이 되었다.)

Lee가 지휘하는 Northern Virginia Army가 항복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군대도 차례로 항복했다. 그중 가장 큰 군대는 North Carolina에서 Gen. Sherman과 대적하고 있든 Joseph E. Johnston이 지휘하는 군대였는데 그도 4월 24일에 항복했다. General Sherman은 초토화 전술을 쓴 현대전의 최초 장군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의 전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란 잔인한 거다.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전쟁은 일찍 끝난다." 그의 초토화 전술이 효과를 나타내 끝없이 계속될 것 같든 전쟁은 급속히 진전되고 그 결과 링컨조차 질 것으로 예상했든 대통령선거는 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링컨이 재선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거의 틀림없이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쪼개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전술을 썼든 Sherman도 Johnston이 항복하자 Grant에 못지않은 관용을 베풀었다.

Sherman은 전후 전혀 정치에 관여치 않고 끝까지 군인으로 남아 있다가 은퇴했다. 은퇴 후 그는 Johnston과 자주 만났고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Sherman이 1891년 2월 14일에 71세의 나이로 뉴욕에서 죽었다. 그의 장례식 날은 비가 내리고 몹시 추웠다. 모자를 벗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Johnston 장군의 건강을 염려한 주위 사람들이 "장군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모자를 쓰시지요." 하자 "오늘 나대신 그가 이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그도 모자를 벗었을것이오." 하고 듣지 않았다. 그날 든 감기로 인해 폐렴이 되면서 35일 후에 그도 그의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났다.

1865년 4월 14일

이날은 Good Friday, Fort Sumter에선 국기게양식이 거행되고 대통령 명령으로 전국에서 축포가 터진 기쁜 날이었다. 4년 전 이날에 내렸든 바로 그 국기가 그때 그 국기를 내렸든 Major Robert Anderson에 의해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 게양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기뻤든 이날은 그날 저녁에 가장 슬픈 날이 되었다. 링컨 대통령이 Ford 극장에서 "Our American Cousin"이라는 희극을 관람도중 John Wilkes Booth가 뒤에서 쏜 총에 의해 쓰러졌다. 총탄은 목을 뚫고 바른쪽 눈에 박혀 회복 불가능이란 의사의 진단으로 아무 손도 못 쓰고 다음날 아침 56세를 일기로 그의 생애는 끝났다. 제2차 취임식을 가진 지 채 43일도 안된 날이었다. 부통령인 Andrew Johnson도 다른 암살범에 의해 살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암살범이 겁을 먹은 덕에 살해를 면했고 국무장관이던 William Seward는 그의 아들과 함께 칼로 찔려 중태에 빠졌으나 살아났다. William Seward는 링컨을 이어 대통령이 된 Andrew Johnson의 국무장관으로 유임하면서 2년 후(1867년 3월 30일) 알라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백20만불(acre당 2전)을 주고 사는데 주역을 한 사람이다.

그는 당시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비싸게 산 바보, Seward's folly, Seward's Icebox라고 놀림을 당한 사람이다.

1865년 4월 26일

암살범 John Wilkes Booth가 수색 대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 신봉자로서 흑인을 노예제도에서 해방한 링컨은 결코 용서 할 수 없었다. Lee가 항복한 후에도 그는 자기가 링컨을 제거하면 아직 항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군이 궐기,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링컨을 죽인 열흘 후에 Johnston의 군대도 항복함으로써 그의 꿈은 사라졌다. 그는 "Useless, Useless"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

1865년 4월 21일-5월 3일

Abraham Lincoln의 영구 열차는 그가 4년 전 Springfield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했든 길과 반대로 천천히 움직였다. Philadelphia에서는 Independence Hall에 영구가 안치되었다. 이곳은 4년 전에 암살 당할 것을 예상이나 한 듯 "…. But if this country cannot be saved without giving up that principle, I was about to say I would rather be assassinated on this spot than surrender it."라고 말한 바로 그 장소에. 1654마일을 열이틀에 걸쳐 Springfield에 도착했다. "A House divided in itself cannot stand"라고 1858년 6월 16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때 연설한 바로 그곳에 돌아왔다. 그 자신은 쓰러졌으나 집은 바로 세우고 돌아왔다. 아홉살 때 죽은 링컨의 어머니를 대신해 링컨을 링컨으로 키운 Sarah는 링컨이 워싱턴를 향해 떠날 때 가졌든 예감, 다시는 살아있는 그를 못 보리라는, 이 현실로 나타나자 흐느껴 울었다.

1865년 11월 10일

Andersonville 포로수용소장 Henry Wirz가 인류에게 저지른 잔학행위의 죄명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Camp Sumter로 불렸든 이 악명 높은 포로수용소에서 죽은 북군 포로들의 수는 후에 미국 적십자 창시자가 되고 남북 전쟁터의 천사로 불린 Clara Barton의 조사 결과 1만2천912명으로 집계됐다. Henry Wirz는 교수대에서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숨을 거두었다. Atlanta에서 Savannah로 진격하든 도중에 Andersonville 포로수용소를 지나다가 병들어 신음하고, 입은 상처엔 구더기가 끓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해 산송장(사진 참조)이 된 전우들을 본 Sherman군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1913년 6월 1일-3일

50년 전, 1863년 6월 1일과 3일 사이에 벌어졌든 전투, 양쪽 합해 4만 6천 명의 사망자를 낸 Gettysburg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이 펜실바니아 주 Gettysburg에 모여 사흘을 지나며 옛날 〈다음면에 계속〉

함께 50년

노 영 일(68, 시카고)

씨아틀에 사는 큰 딸이 주동이 되어 우리 결혼 50주년 기념 가족모임을 계획했다. 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자니 일정을 맞추기가 고등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려웠다. 스위스 사는 손녀들이 여름방학 동안 씨아틀 북쪽 벨링함 뮤직캠프에 와 있어서 그 아이들 캠프가 끝나는 날에 맞추어 모이기로 하였다.

날짜가 되어 가족들이 하나 둘 씨아틀로 모였다. 바닷가 호텔에서 모였는데 방밑이 바다라 마치 해상호텔 같았다. 내어다 보이는 씨아틀 항구와 태평양 바다가 아름다웠다. 손녀들 뮤직 캠프가 끝나는 날 벨링함으로 올라가 마지막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관람하였다. 저녁에는 해산물 식당에 가서 싱싱한 요리를 즐기며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 사촌들끼리 정담을 나누었다.

다음 날 새벽 경비행기에 나누어 타고 해협을 건너 카나다의 빅토리아 섬으로 향했다. 빅토리아는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리조트에 머물며 수영, 카누, 카약 등을 즐기면서 손주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셋째 날에는 부차트 가든에 갔다. 30여년 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다 꽃들도 많고 규모도 커졌다. 마치 에덴동산에 와 있는것 같은 느낌이었다. 꽃동산에서 뛰노는 일곱 손주들이 꽃보다 예뻐 보였다.

씨아틀로 돌아와서 스페이스 니들, 보잉 비행기 공장 등을 관광하고 그곳에 사는 누이동생 가족들과 골프도 치고 저녁도 함께 먹었다. 며칠 안되는 일정이었지만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지낸 시간들이 꿈만 같이 지나갔다.

아내와 내가 만난 것은 50여년 전. 내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아내는 서울 미대 학생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미술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그리는 여학생들이 특별히 매력 있어 보였다. 그 당시 미술대학 교사는 바로 인턴 숙사이던 정영사 앞에 있어서 2층 내방에서는 여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우연한 인연으로 아내를 몇 번 만나다가 아내의 졸업 전시회에 가서 아내가 출품한 자화상을 나에게 달라고 하였다. 마음을 졸이며 대답을 기다리는데 선뜻 가지라고 한다! 그래서 아내도 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 그 자화상은 아직도 우리 집 벽에 걸려있다.

문리대 뒤 낙산에 새로 지은 시민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낙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 당첨되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가파로와 택시를 타면 세 대중 한 대만 기를 쓰고 올라갈 수 있었다. 내려올 때는 굴러 떨어질까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였다. 나는 매일 이곳에서 서울 대학병원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그때 무슨 남북회담을 서울에서 했는데 이북 사람들에게 화려한 서울을 보여준다고 방마다 밤새도록 불을 켜 놓으라는 훈령이 내려와 며칠간 잠을 설친 기억도 난다.

첫 딸은 우리 사랑의 열매요 하나님의 선물같이 생각됐다. 너무나 귀여워 나는 매일 안아주고 사진도 셀 수 없이 찍어 두었다. 아내는 임신 때부터 자라나는 아기의 육아 일기를 매일 썼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웠다. 지금도 그때의 사진과 육아 일기가 우리 집에 있다.

취프 레지덴트할 때 수련의 파동이 있었다. 군사 정권의 서슬이 시퍼런 칼날 같을 때 수련의들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했다. 신문에 대서특필로 보도되고 이는 다른 데모를 유발시킬지도 모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김종필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와 수련의들을 4학년 강의실에 모아 놓고 자기는 수련의들이 그런 열악한 처우를 받는 줄 몰랐다고 놀라기라도 한 듯 동감을 표하며 월급을 올려 줄 터이니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웬걸. 다음 날 4년 차 레지던트들은 모두 무의촌으로 가라는 훈령이 내려왔다. 그것도 3일 안에 임지에 부임하라는 것이었다. 그때 아내는 만삭의 몸이었다. 하던 병원 일도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만삭인 아내를 집에 남겨 놓고 이름도 모르는 오지로 떠나야 했다.

무의촌에 가서 매일 라면만 끓여 먹고살던 때에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다. 나는 출산을 보지도 못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님의 대학 동기 동창인 나건영 교수가 아이를 받아 주셨다. 나건영 교수는 분만실에서 나오면서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경사는 경사지"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그곳에 있던 인턴한테 들었다. 딸 쌍둥이를 낳은 것이었다. 아내는 삼대 독자에게 시집와서 첫째도 딸을 낳고 둘째는 딸 쌍둥이를 낳았으니 면목이 없었을 것이었다. 더구나 남편도 없는데 마음고생 몸 고생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네 째 아이는 내가 군복무할 때 태어 났다. 군대 훈련을 받으면서 축적해둔 정기를 총력 투입 한 탓인지 아들을 낳았다. 온 가족의 경사였다. 아내는 마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조된 느낌이었을 것이다.

제대 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전문의 자격증에 최연소 의학박사 학위까지 받고 왜 미국에 가냐고 모두 의아해했다. 다섯 살 이하인 네 아이를 데리고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비행기 안에서 계속 아이들을 교대로 화장실에 데리고 간 기억밖에 나지를 않는다.

어쩌다 운 좋게 세인트루이스 대학병원 인턴 자리를 얻게 되었다. 늙은 나이에 젊은 애들과 함께 다시 인턴을 하자니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니 어린 자식들은 애비 없는 아이들처럼 자랐다. 아내는 쥐꼬리만한 인턴 월급에 월부로 피아노를 하나 사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몇 년에 걸쳐 월부금을 다 갚고 나서 갖다 바친 돈 총액을 계산해 보니 이자까지 합쳐 피아노 값의 세 배는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음악 교육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던지 필사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가

끔 아이들이 종이조각에 끼적끼적 그려논 그림을 보면 그 색감이나 구도가 놀라웠다. 역시 유전자는 못 속이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림은 절대 가르쳐 주지를 않았다. 나중에 내가 개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2의 악기들을 가르쳤다. 나는 일하느라 바쁘고 아내는 아이들 데리고 레슨 다니느라 나보다 더 바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딸들은 모두 음악을 전공했다. 첫 딸애는 플류트를, 둘째는 첼로를, 셋째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훌륭한 앙상블로 함께 연주회도 했다. 유수한 음악대학을 나왔으나 일자리가 없었다. 큰 딸은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 결국 의사가 되어 내 뒤를 따라 신경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지금은 씨아틀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 둘째 딸은 들어가기도 힘든 약학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공부를 하다가 한 학기를 남겨 놓고 죽어도 더 못하겠다고 나가자빠졌다. 그리고는 디자인 학과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물을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행복하게 보였다. 셋째는 바이올린을 하루 여섯 시간씩 하다가 팔꿈치 관절염이 걸렸다. 팔이 하도 아파 한 학기를 휴학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다. 그러다가 많은 동료 음악가들이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보고 음대를 졸업하고 의료 공학과에 들어가 음악가들이 걸리는 직업병을 연구하여 이 특수한 분야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사대 독자인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의과대학을 가라고 내가 손발이 닳도록 빌었다. 너의 할아버지도 의사였고 아버지도 의사인데 너도 의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법과 대학에 들어갔다. 결국 최고 명문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 노릇을 5년간 했다.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변호사는 못해 먹겠다며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가 결국 의사가 됐다. 지금은 시카고에서 마취과 개업을 하고 있다. 이런 우여 곡절을 겪느라고 나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씩 미국 대학에 등록금을 갖다 바쳤다. 첫딸이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좋아하다가 첫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기절을 할뻔했다. 무려 2만불을 현금으로 내라니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내 수입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아직 세 아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눈앞이 깜깜했다. 명색이 의사라고 장학금은 생각도 말란다.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꾸려 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불가사의다.

아내와 나는 그림을 좋아한다는 공통분모를 빼고는 너무나 다르다. 아내는 철저한 문과이고 이과 계통에는 깜깜이다. 집안의 사소한 전기 제품도 고칠 줄 모른다. 심지어 휴즈나 전구 하나도 갈아 끼울 줄 모른다. 수학이나 과학지식은 기초 수준도 못된다. 그러나 역사나 예술 방면에는 혀를 찰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 내가 일하는 동안 독수공방을 하며 깨친 성경 지식은 목사들 뺨칠 정도이다. 반면 나는 문과 계통에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한 과목이 역사와 윤리였다. 역사 이야기를 아내에게 물어보면 술술 나오는 것이 신통할 정도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설거지도 할 줄도 모르고 음식은 라면 끓이는 것 밖에 할 줄 모른다. 남의 마음을 짚어 본다거나 설득하는데 약하다. 말다툼을 하면 번번이 아내한테 진다. 이런 상반된 유전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 서로 경쟁을 하며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었다. 네 아이 모두 문과로 시작하였다가 결국 두 아이는 이과로 돌아왔다. 일곱 손주들은 지금 자기 부모들이 모두 악기를 가르치고 있다. 음악 경연 대회에서 상도 탄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무엇을 할지 궁금하다.

아내와 나는 직소퍼즐을 맞추듯 나온 것과 들어간 것을 맞추어 가며 오십년 동안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 왔다. 건전지의 음극과 양극이 상반되는 것 같지만 함께 밝은 빛을 만들어 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함께 50년을 살았다. 아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인생의 반려자이다. 나는 사소한 재주는 한두 개 있으나 돈 버는 재주가 없어서 칠학년 중반을 넘기도록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충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과 건강하게 자라나는 손주들을 볼 때 마음이 흡족하다. 나는 부자다.

〈전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부는 회색, 북부는 푸른 전투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군모를 쓰고 나와 싸웠든 전지를 가리키며 옛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장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과거는 항상 즐거운 법, 팔을 잃고 다리를 잘린 그들도 남의 일인듯 웃으며 이야기 했다. Cemetery Hill을 향해 남부군이 함성을 지르면서 돌진(?)했다. 위에 있는 돌담에서 이를 지켜보든 북부군은 감정이 솟구쳐 더 기다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 남군을 향해 구르듯이 내려왔다. 그리고는 서로 잔등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1914년 2월 24일

Gettysburg의 영웅, 그리고 Appomattox에서 General Lee의 Northern Virginia Troop의 정식 항복식 사열을 받았던 General Chamberlain이 죽었다. 그는 원래 Maine 주에 있는 Bowdoin 대학의 교수였고 군대 훈련을 받은 바가 없는 지원병이었다. 그는 수학과 과학을 빼놓고는 전 과목을 가르쳤으며 영어 외에 9개 국어(희랍어, 스페인어, 불란서어, 독일어, 라틴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고 Syriac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탁월한 교수였다.

전후 그는 다시 Maine에 돌아가 4년간 주지사로 지난 후엔 다시 그의 모교 Bowdoin College에서 1871년부터 1883년까지 총장으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져 퇴임, 1914년 2월 24일에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는 수학 외에 전 과목을 강의했다고 전한다. 그의 죽음은 Civil War 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판정되어 그는 미 남북전쟁 때 전사한 최후의 군인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죽은 날이 진짜 남북전쟁이 끝난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1938년 6월 1일-3일

Gettysburg 전투 75주년 기념식에 당시 싸웠든 남북 군인이 다시 모였다. 90살이 다 넘었고 100을 바라보는 노인들이 Cemetery Hill 돌담을 사이에 두고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는 크게 웃으며 식을 마쳤다. 그리고는 붉게 넘어가는 해를 뒤로하고 헤어졌다.

2019-20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이성길 회기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1949 고영철 1950 한원봉
1952 박종식 1953 강수상
1954 이동식 1955 노용면
1956 김신형 김윤태 박상기 서상철
1957 김용진 임종식 임종원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순옥 김시한 김학륜 김해암 박호현 배영섭 송세엽 신상균 유영호 이만택 이상설 이종국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반용균 방석운 서경화 신한수 이종수 임낙중 임원기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한달수 한성업
1960 고재경 권기홍 김영환 김완주 김택경 박명근 박형순 박춘명 이경화 이광준 이덕숭 이상일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용주 전희근 조재동 한성수
1961 강창욱 곽동린 김영철 김성준 김예흠 김유홍 김학철 김화섭 박장생 박준환 박호성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준우 이회백 이한수 장성환 장태환 정철융 조은순 진창건 최공창 최성덕 최태순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1962 고흥호 김석식 김한종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찬형 승홍일 오태요 이기범 이상복 이석우 이용길 이태봉 조명호
1963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계윤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현학 노인규 마동일 박세록 박승균 서경석 선종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왕규현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이종두 이병준 이수인 이숭현 장세곤 조열하 조한원 추재옥 하상태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박세준 라찬국 송원길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황 오유섭 유광현 유창남 윤홍기 이광신 이웅만 이재풍 이정은 이종성 이주영 이중오 이홍표 임병훈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1965 구경회 김덕진 김욱현 박수안 이광선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조성구 지영환 채도경 최영인 황규정 홍수웅
1966 김의신 김우신 김진수 김진호 김충규 민발식 이명희 이성근 이영일 장한교 정량수 조관상 한동수 한일성 황 철 허서룡 최순채 최영자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우준균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소희 이영균 이정화 이준식 이진수 이태안 최무웅 한영수
1968 김경인 김명원 김영남 김희주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용계 안긍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상훈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서 량 송용재 안병일 오선웅 윤효윤 이용환 이충호 임웅규 정한규 최승응 최종일 최종진
1970 박찬진 박홍식 송요준 오석일 장극기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일영 김제홍 김효순 김훈훈 김창구 박동수 박상효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이종일 이성길 장문석 장 철 조세진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박찬호 석창호 오용호 이기진 이신재 장혜숙 정진우 조경호 황용규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방병기 서인석 심원섭 오인환 위장호 이계석 임준형
1974 권철수 김웅진 1975 김자억 김원정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1976 김정아 한승신 유영걸 1977 김동훈 박일우
1981 이선희 1982 차민영
1983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1985 박정미 1988 신원석
1989 이선규 1998 강현선
1999 김정훈 박종철 이도은 2000 박은경
2001 김민정 김태곤 장세권 2002 최태웅
2008 박종환 __ 은 2회 이상 납부하신 분

회비와 donation을 PayPal을 이용하여 내시는 회원들께서는 Fee를 포함한 금액을 내시어 동창회가 net 금액으로 받게 보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PayPal에서 은행 구좌로 옮기는 것은 바로 할 수가 없고, 일정 기간을 지나서 하게 되는데 Fee를 떼고 들어오므로 장부 정리에 고충이 많습니다.

37th CONVENTION DONATION

신상균(58) 500 이종석(60) 100 한수웅(61) 100 한혜원(61) 100 김태형(63) 75
이재풍(64) 100 이홍표(64) 150 허선행(64) 100 김진수(66) 50 장한교(66) 75
김영남(68)1,000 강창홍(71) 100 김성환(71)1,000 김일영(71) 500 김창구(71) 100
배성호(71) 300 이기진(72) 200 김천일(73) 100 나두섭(73) 200 문대옥(73) 300
서인석(73) 500 배영훈(75) 5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이선규(89) 100
이도은(99) 50 남가주지부1,000 서울메티칼그룹 3,000

GENERAL DONATION

한용현(48) 120 강수상(53) 500 노용면(55) 200 김신형(56) 200 서상철(56) 75
임종식(57) 125 임종원(57) 75 김석희(58) 200 신상균(58) 500 강상진(59) 100
김교안(59) 50 오형원(59) 100 최종진(59) 2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1,000
박명근(60) 50 이경화(60) 75 임종원(60) 50 한성수(60) 75 강창욱(61) 250
이회백(61)1,000 진창건(61) 100 황현상(61) 75 고흥호(62) 250 민경환(62) 75
박찬형(62) 250 오태요(62) 250 이영웅(62) 250 권영조(63) 500 김계윤(63) 75
김현학(63) 75 송용덕(63) 200 신경호(63) 75 권정덕(64) 100 김태환(64) 200
라찬국(64) 100 양운택(64) 100 오유섭(64) 75 이재풍(64) 100 임병훈(64) 100
정유석(64) 500 조동준(64) 250 최준희(64) 175 박수안(65) 100 이재진(65) 200
이한중(65) 250 정길화(65) 100 지영환(65) 75 정량수(66) 300 최순채(66) 250
허서룡(66) 500 강명식(67) 175 김성철(67) 75 문경웅(67) 100 이진수(67) 50
최무웅(67) 250 김명원(68)1,000 김진홍(68) 250 김희주(68) 100 노영일(68) 300
서윤석(68) 600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이상훈(68) 175 차재철(68) 75
김병오(69) 250 김중권(69) 200 김창남(69) 250 서량량(69) 375 정한규(69) 50
문성길(70) 350 박찬진(70) 100 방준재(70) 500 오석일(70) 300 조남현(70) 100
김성환(71) 500 박동수(71) 175 배성호(71) 75 온기철(71) 500 이원택(71) 300
오동환(71) 225 장철철(71) 75 정균희(72) 500 오용호(72) 300 나두섭(73) 500
민인기(73) 50 박인영(75) 50 김동훈(77) 100 차민영(82) 500 박정미(85) 100
신원석(88) 125 *Mrs. 송영두(62) 200

CHARITY FUND

이상설(58) 100 강상진(59) 100 이기범(62) 75 조한원(63) 75 신두식(64) 100
허선행(64) 100 홍선경(64) 100 채도경(65) 100 최영인(65) 75 최영자(66) 200
김창구(71) 75 하준영(71) 75 김천일(73) 100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SCHOLARSHIP FUND

김학륜(58) 100 신상균(58) 200 정태진(59) 75 임필순(60) 200 황현상(61) 200
고흥호(62) 200 김한종(62)1,000 이기범(62) 300 조명호(62) 200 김태웅(63)10,000
한기현(63) 225 이재풍(64) 100 이홍표(64) 125 허선행(64) 100 김진호(66) 100
이영균(67) 100 박수웅(69) 200 조남현(70) 100 김효순(71) 125 배성호(71) 100
서정자(71) 375 이성길(71) 500 박찬호(72) 200 조경호(72) 75 김웅진(74) 100
김자억(75) 500
*Mrs. 한용현(48) 3,000 *장병욱 FUND 10,000 *이유찬(64) 장학금 5,000

GREEN PROJECT FUND

이종석(60) 75 전용주(60) 75 이용길(62) 200 안연승(64) 250 이홍표(64) 100
허선행(64) 100 이광선(65) 75 박수웅(69) 200 이성길(71) 5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이선희(81) 100 전원일(84) 125
서귀숙(84) 100 이선규(89) 100 박종철(99) 100 이도은(99) 100 박은경(00) 100

AASCDFT DONATION

민발식(66) 100

시계탑 문집 (6집) 기금

강수상(53) 500 김시한(58) 250 김해암(58) 200 김병석(59) 300 오형원(59) 100
임낙중(59) 400 박형순(60) 250 이덕숭(60) 500 전희근(60) 250 강창욱(61) 250
안창현(61) 250 이재승(61) 250 이회백(61) 500 정두현(61) 300 고흥호(62) 250
박찬형(62) 250 오태요(62) 250 이영웅(62) 250 김태형(63) 300 김택수(63) 250
이수인(63) 250 이홍빈(63) 250 정관호(63) 250 추재옥(63) 250 정유석(64) 500
조동준(63) 250 허선행(64) 300 이한중(65) 250 김용재(66) 300 정량수(66) 300
최순채(66) 250 허서룡(66) 500 최무웅(67) 250 노영일(68) 300 김명원(68)1,000
김진홍(68) 250 서윤석(68) 600 안세현(68) 500 이건일(68) 300 김병오(69) 250
김창남(69) 250 문성길(70) 350 방준재(70) 500 김성환(71) 500 온기철(71) 500
이원택(71) 300 정균희(72) 500 나두섭(73) 500 박인영(75) 250

제2회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듀엣 가요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제37회 학술대회 기간중 선후배 동문들간의 화합 증진을 목적으로 듀엣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젊은 동문과 선배님이 함께 듀엣을 만들어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참가조건: 서울의대 미주 동문 두 명이 한 듀엣 팀을 이루어 참가합니다. (선착순 6팀)

참가곡: 노래방 기기에 수록된 곡은 어느 곡이나 가능합니다.

일 시: 2020년 4월 4일(토) 저녁 연회시 (Grand Banquet)

상 금: 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참고로 듀엣을 이루는 두 동문의 졸업 년도 차이가 클수록 최종 점수에서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듀엣 팀 참가자의 성명, 졸업 연도, 이메일 연락처, 신청곡을 동창회 사무실 (snucmaa@yahoo.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사회자 백승원, MC 박진현

"평시조" 작품 모집 공고

제37차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동문, 배우자님의 평시조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사설 시조나 현대 시조가 아님)

심사위원: 서량, 박종희, 이원택, 서윤석

상 금: 1등, 2등, 3등 (합계 $1,000)

투고방법: 투고함이 4월 2-4일 정오까지 Front Desk에 있으며 직접 투고. 성명과 졸업 년도를 같이 적어주십시오.

발표 및 시상: 4월 4일 토요일 저녁 Grand Banquet에서 있으며 수상자는 본인의 작품 낭송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주최: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시계탑 편집회 일동

동문들의 저서 소개 시간 안내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제37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그동안 여러분께서 발간하신 저서들의 소개하고 진열할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직접 저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문 및 배우자들께서는 편집인 (혹은 동창회 사무실)로 미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